

순천향

SOONCHUNHYANG UNIV. MEDICAL CENTER MAGAZINE



‘순천향 인간사랑’
세계를 품다

순천향

SOONCHUNHYANG UNIV. MEDICAL CENTER MAGAZINE

통합의료원보

2019. 09 / 10

SCH
순천향대학교의료원
SOONCHUNHYANG UNIVERSITY MEDICAL CENTER

SCH
순천향대학교중앙의료원
SOONCHUNHYANG
UNIVERSITY MEDICAL CENTER



SEPTEMBER/OCTOBER 2019
통합의료원보 VOL. 55 **09/10**

CONTENTS

2019 **VOL. 55** 통합의료원보



순천향의 인간사랑을 지구 나무로 형상화하여 온 세계에 사랑의 의술을 전파하고 펼친다는 의미를 담았다.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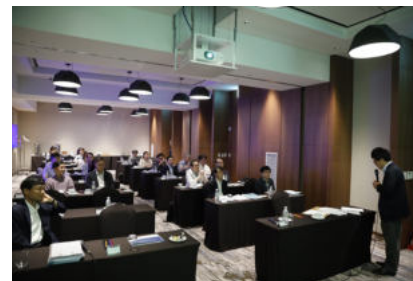
PROLOGUE

다시 향설 서석조 박사를 생각한다

09/10

SOONCHUNHYANG UNIV.
MEDICAL CENTER MAGAZINE

발행일 2019년 10월 15일
발행인 황경호(순천향대학교 중앙의료원장)
발행처 순천향대학교 중앙의료원
편집위원 이미중, 한세형, 서태원, 유채민
연락처 02-709-9120 www.schmc.ac.kr
주소 서울시 용산구 대사관로59
기획·편집·디자인_피애플러스 02-2269-5689
인쇄 아트애플파트너스(주)



8

FOCUS

순천향대학교,
혁신적 미래가치사업 어젠다 설정

4

SPECIAL

순천향 '인간사랑' 세계로

10

ISSUE

서울병원,
보건복지부 평가 최고등급 획득

12

ISSUE

부천병원,
부천시 유일 뇌졸중센터 인증

14

ISSUE

천안병원,
충남 경찰관·소방관 건강증진 앞장

15

ISSUE

천안병원,
바이오메디컬 산업선도

16

ISSUE

구미병원,
개원 40주년 교직원 한마음 대회

18

LOVE

부천병원 안미령 환자 감동 스토리



20

VISIT

구미병원 검진팀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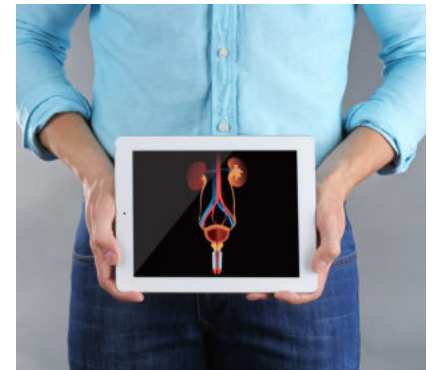
DOCTOR

김소영 천안병원 안과 교수

28

WITH SCH

기부자, 이현욱 상훈유통 회장



30

KNOWLEDGE

전립선암, 사이버나이프 치료 효과적

32

KNOWLEDGE

얼굴 뼈 골절 치료법

34

KNOWLEDGE

탈모 조기 치료 효과적

36

KNOWLEDGE

수면호흡장애 중대질병 인식 필요

38

EQUIPMENT

사이버나이프

44

NEWS



향설 서석조 박사의 SCH플랫폼

탄생 100주년, 서거 20주기에 빛을 발하다

글_백승주

순천향의 역사는 다윈의 진화론적 히스토리아(historia: 조사를 통해 배우고 글로 적은 역사)와 유사하다. 원시 지구는 몇 가지 기본 분자가 충돌하면서 새로운 결합으로 생명을 탄생시켰다. 이를 과학자 스튜어트 카우프만은 인접가능성(adjacent possible)이라 부르고 변화와 혁신의 1차적 결합이라 불렀다. 다윈은 ‘종의 기원’에서 “복잡하게 얽혀 있는 독 위에서...서로에게 의존하며 살아가는 정교한 형태를 바라보면 장엄하게 느껴진다.”고 끝을 맺고 있다.

1978년 향설 서석조 박사는 순천향대병원과 순천향의과대학 설립의 1차적 결합을 통해 초기 SCH플랫폼을 구축했다. 이를 통해 의료사적 및 대학교육사(史)적으로 의미 있는 통합교육의 시도와 혁신의 SCH DNA를 가진 순천향의 탄탄한 생태계 탄생을 예고했다. 다윈은 남태평양 산호초 생태계의 상호의존성과 공생적 연결에서 진화론의 이론적 토대를 발견했다. 순천향의 진화는 향설 서석조 박사의 미국 유학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는 이미 놀랍게도 한국 의학 발전의 절실한 토대인 병원-대학-연구의 인터스트리 4.0시대의 융복합형 ‘SCH플랫폼’을 이미 구상한 것이다. 서 박사의 예지력과 통찰력은 참으로 놀라울 뿐이다.

서석조의 SCH플랫폼 이제는 세상에 꺼내 보여야 한다

이제 순천향은 병원-의과대-자연과학대-의료과학대-SCH미디어랩스 등 결합 플랫폼으로 4차산업 혁명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이는 위에서 말한 서 박사의 ‘SCH플랫폼’의 토대인 병원, 대학, 의학연구의 통합 시스템 구현의 완성으로 평가된다. 다윈의 ‘진화론’도, 서석조 박사의 ‘SCH플랫폼’도 숨어 있는 변화를 통찰력으로 예견했기에 세상에서 빛을 발하는 것이다. 향설 서석조 박사의 미래를 내다보는 예지력, 해안은 4차산업 혁명시대를 맞아 그 빛을 더욱 크게 발하고 있다. 서 박사가 서거한 지 12월이면 20주기다. 내후년이면 그가 탄생한 지 10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다. 다윈의 ‘진화론’은 환상 산호초에서 생명 진화의 단서를 발견하고 30년의 연구 끝에 세상에 알려졌다. 20년이 지난 지금 서석조의 SCH플랫폼을 세상에 꺼내 보여야 한다. 우리는 순천향의 서석조가 아니라 이제는 대한민국 의학 발전과 대학 발전의 선구자 서석조 박사로 인식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탄생 100주년과 서거 20주기를 맞아 그의 위업을 당당히 세상에 알려 그를 추모하고 숭고한 ‘인간사랑’의 철학과 교육이념을 받들어 우리 사회에 승화시킬 책임은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다.

SPECIAL

순천향 ‘인간사랑’ 세계 브랜드로 거듭나다

순천향 국제사업팀, 정부가 인정한 국제보건계 프로젝트 관리 전문팀

글·사진_김영현(국제사업팀)

순천향대학교 중양의료원 국제사업팀은 2010년부터 의료 도움이 필요한 세계 곳곳에 인간사랑 정신을 나누고 실천하고 있다. 순천향 국제사업팀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이비인후과 전문의로 역량강화사업의 일환으로 캄보디아 앙두엥 병원 의료진과 함께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병원 운영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 2019년 8월 순천향대학교 중양의료원 의료진은 캄보디아를 방문하여 캄보디아 최초 이비인후과 국제학술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캄보디아 유일 국립 이비인후과 병원의 의료진을 대상으로 교육을 제공했다. 또한 안전한 병원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컨설팅도 제공은 물론 3년 후에는 현대식 이비인후과 전문의료센터가 건립될 예정이다. 이로써 한국 정부의 지원과 순천향대 의료원 교직원들의 노력으로 캄보디아에서만 벌써 네 번째 의료 시설이 건립되는 큰 업적을 남기고 있다.



지난 8월 15일 캄보디아 소카호텔에서 순천향, 앙두엥, 한컴봉사회 이비인후과 컨퍼런스를 마친 후 참석자들과 기념촬영. 왼쪽부터 유병욱 단장, 김진화 팀장, 임정임 간호부장, 노현준 코이카 소장, 신웅진 부천병원장, 오낙영 캄보디아 대사, 캄분행 캄보디아 보건장관, 사폰 본타낙 국립의대 총장, 로우리키앙 앙두엥 병원장

정부로부터 인정받은 국제사업팀 발족...명실상부 국제보건계 프로젝트 관리 전문팀

순천향대의료원은 캄보디아는 물론,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 중동의 요르단과 이라크, 중남미의 볼리비아 등 세계 곳곳을 다니며 순천향의 도움이 필요한 곳에 의료 노하우와 경험을 전수하고 인간사랑 정신을 나누고 있다. 순천향의료원의 국제사업, 그 역사부터 알아보기로 한다. 잘 알려지지 않은 순천향의 역사 중 서울병원에 위치한 모자보건센터가 있다. 1983년도 대한민국 최초의 ‘한국모자보건센터’가 순천향대 서울병원에 세워지게 되는데 해외 원조 프로그램이었다. 이렇게 순천향의료원은 직접적으로 그 원조를 경험하였기 때문에 지금의 개발도상국을 돕는 일에 누구보다 적극적이고 마음을 다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순천향의료원의 첫 번째 원조 프로젝트 역시 캄보디아 시엠립 주립병원에, 순천향과 똑같은, ‘모자보건센터’를 설립해 주는 것이었다. 그리고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5년 동안 시엠립 주립병원의 의료진들을 초청하여 새 모자보건센터를 찾는 환자들에게 필요한 진료를 해줄 수 있도록 교육을 해주었다. 산부인과, 소아과 의사는 물론 간호사, 조산사, 의료기사와 행정직원들까지. 시엠립 주립병원의 모자보건센터는 순천향 제2의 모자보건센터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노력이 묻어있고 아직까지 그 흔적이 남아 있다.

한국 정부의 원조기관들과 함께 하는 이러한 활동들을 우리는 국제개발협력사업 또는 ODA사업이라고 부르고 있다. 대한민국이 성장하고 그 경제가 해마다 발전하는 만큼 원조 규모도 성장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원조의 규모가 그 나라의 경제력을 반증한다고 할 정도로 정부의 중요한 예산 중에 하나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대외 원

조 활동 역시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발맞춰 순천향의료원에서도 대내적으로 많은 투자와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그 결과물이 바로 ‘국제사업팀’이다. 타 의료원과는 차별적으로 정식 부서로 조직된 국제사업팀은 국제 사업을 전문적으로 기획, 수행하고 있는 부서다. 2010년도 기획조정실 안에서 출발한 이 팀은 2015년도 공식적으로 발족되었으며 지금까지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정부기관들로부터 인정받는 명실상부, 국제보건계 프로젝트 관리 전문팀으로 자리 잡았다.

순천향 국제사업의 A to Z

국제사업의 기획, 수행부터 평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활동을 해오며 최근 국제 프로젝트를 통한 연구 활동으로도 그 영역을 넓히고 있다. 국제개발협력 사업들은 어떻게 실행되는 것일까? 순천향에서 주로 추진하고 있는 국제사업들은 국제연합 UN에서 정한 가이드라인 안에서 정부와 정부 간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원조 우선순위가 정해지고, 수원 국에 꼭 필요한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한 후 이를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최선의 기관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즉 아무나, 아무렇게나, 아무 곳에 가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순천향 국제사업팀은 이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정부기관에 인정받으며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었다.

요르단 보건소 건립사업

시리아의 분쟁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드물 정도이다. 아랍의 봄, 민주화 운동으로 시작한 내전이 종교 간 전쟁이 되고, 주변국들과 선진국들이 관여하기 시작하면서 전쟁과 그로 인한 피해는 날로 커지고 있다. 나라와 집을 잃은 난민들은 인근 국가들로 피난을 가고 있다. 1950년대의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이다. 한국 정부는 이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순천향의료원과 함께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되었고, 바로 시리아 난민들과 지역주민을 위한 보건소 3개를 접경국인 요르단에 건립해 주었다. 난민 유입으로 인구가 두 배 가까이 늘어난 요르단에는 자연스럽게 보건 시설이 부족해지면서 시의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지게 된다.



요르단 암만 보건소 완공식

전쟁 30년 후, 이라크 재건 사업

국제개발협력사업은 인도주의적인 지원도 많이 이뤄지지만 국가 간 필요에 따라 외교적인 이유로도 많이 활용되기도 한다. 지금 의료원에서 추진 중인 이라크 중환자 전문의료 역량강화사업(사업책임자 이우령 교수, 서울병원 소아청소년과)이 그런 사업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라크 하면 생각나는 게 걸전, 독재자 후세인, 이슬람 무장세력 등 전쟁과 관련된 무서운 생각들이 먼저 떠오른다. 그러나 이라크는 티그리스 강을 품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상지이며 바빌론 문명과 함무라비 법전 등 고대 문명, 문화의 중심지였다. 기독교 성서에 가장 먼저 나오는 아브라함의 고향이 이라크라는 이야기도 있을 정도. 이라크는 산유국으로 한때 경제력이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강한 나라였다. 하지만 정치적, 종교적으로 불안한 시기를 겪고 이란과 미국과의 오랜 전쟁으로 지금 잠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다. 다시 극복할 수 있는 저력이 있는 나라이기에 순천향도 그들을 위한 지원을 지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국 정부와 순천향이 함께하는 중환자 전문 의료센터 건립을 통하여 전쟁 등으로 고통받은 주민들이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고 훗날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친구의 나라가 되길 바란다.

아프리카 유일, 6.25 전쟁 참전국

대한민국과 혈맹의 나라, 어디일까? 바로 에티오피아다. 얼마 전 국가 원수가 최초로 한국을 방문하기도 한 에티오피아는 대한민국 정부 원조의 최대 수혜국이기도 하다. 우리가 가장 어려울 때 같이 피를 흘리며 싸워준 은인 같은 나라이기 때문이다. 평화롭게 민주적인 분위기에서 잘 지내고 있던 에티오피아에도 1970년대 경제 위기를 겪으며 소위 얘기하는 최빈국이 되어간다. 수많은 나라의 원조를 받지만 부패한 정부와 공직자들의 횡포로 그 회복이 쉽지만은 않다. 하지만 순천향은 그들을 기억한다. 이에 한국 정부는 보건은 물론, 교육, IT, 인프라 등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순천향의료원에서는 4년 동안 에티오피아의 보건부를 포함하여 10개의 대학병원의 의료기기 관리운영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컨설팅을 수행했다. 병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의사, 간호사의 역할도 물론 중요하지만 필요한 의료기기가 적절한 기능을 해주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무너진 시스템을 다시 세우고,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자립력을 향상시켜 주기 위하여 비행기 10시간, 차로 8시간 되는 곳을 찾아다니면서 활동하였다. 담장도 건물도 없이 짧은 활주로만 있었던 아주 작은 공항도 있다. 지금은 그때 교육받은 의공기사들이 주축이 되어 학회도 설립하고 병원에서는 물론 보건의료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있다고 한다. 그중 한 명은 배움에 뜻을 갖고 순천향대학을 찾아와 한국어 공부를 하고 의학공학 과정에서 석사 과정을 마치고 얼마 전 귀국했다.



이라크 사업 전담팀 발족 및 착수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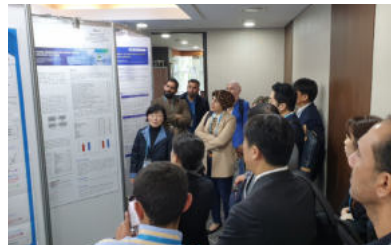
에티오피아 의료기기 컨설팅 사업

프로젝트를 넘어 지속가능성 확보해아

이렇듯 순천향의료원은 지금까지 10개의 국가에서 30개의 크고 작은 프로젝트를 수행하여 왔다. 그 규모만 보면 1,250만 달러를 육박하는 수준이다.

2000년, UN은 새천년개발목표를 설정하여 2015년까지 15년간 세계 빈곤의 정도를 절반 이상 줄이기로 한다. 그 성과는 어느 정도 달성했다고 한다. 특히 모성사망율과 유아사망율은 큰 성과를 거뒀으며 2015년 이후, 세계는 지속가능성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UN은 ‘지속가능한 개발목표’를 수립하여 목표를 더 세분화하고 지속가능한 환경을 만드는데 집중하게 된다. 양성 평등이나 환경문제에까지 많은 관심을 갖게 된 것이다.

순천향의료원의 국제사업팀도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수행하는 단계를 넘어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고민하게 되었고, 순천향이 잘하는, 잘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게 되었다. 바로 진료, 교육 그리고 연구 활동이다. 진료와 교육은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직접 실시하게 되고, 연구 활동이야말로 대학병원으로서 순천향이 전문성을 갖는 분야다. 이 연구 활동은 향후 유사한 국가, 유사한 성격의 프로젝트 기준이 되고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또한 프로젝트 성과관리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프로젝트 운영이 가능하게 된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해당 국가, 해당 기관의 보건의료 발전에 있어 보다 명확한 기준을 제공하고 관리하게 되어 비교 가능한 수치로 개발협력사업의 효과성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2019년 대한중환자의학회 연구 포스터 발표



캄보디아 시엠립 모자보건센터



캄보디아 시엠립 임상술기 트레이닝센터



캄보디아 프놈펜 국립소아병원

“국제개발협력 이해증진사업은 대학 재학생들의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순천향대학교 의료과학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개발도상국 의료 현장을 견학, 현지 조사를 통해 글로벌 문제 분석 및 해결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순천향대학교 국제개발협력 이해증진사업 6년째 운영 중

“국제개발협력 이해증진사업”은 대학 재학생들의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순천향대학교 의료과학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개발도상국 의료 현장을 견학, 현지 조사를 통해 글로벌 문제 분석 및 해결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순천향대학교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지원을 받아 2015년도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운영해 오고 있으며 국제보건과 개발, 국제개발협력의 이해 등의 교과목을 개설하여 현재까지 346명의 학생이 교육을 수료했다.

순천향대학교 국제교류처장을 역임하는 의료원 국제의료기획단장 유병욱 교수(서울병원 가정의학과)는 본교 재학생들에게 국제적인 마인드 함양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제사업팀은 본교에서 개최한 국제개발협력 세미나에 함께 참여하여 학생들과 서로 토론하며 지식의 폭을 넓히는데 기여하고 있다.

학생들은 캄보디아 등 의료원에서 추진한 프로젝트 지역을 방문하여 다양한 현지 활동을 수행하며 경험을 쌓을 수 있었다. 학생들은 2016년, 2018년 캄보디아 시엠립 주립병원을 찾아 주민과 함께하는 보건위생 개선 활동을 실시하였고, 중환자실 환경 개선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양 국방부 직할부대 및 기관 간의 파트너십을 구축하는데 일조했다.

순천향 인간사랑의 세계화!

이욱헌 국제개발협력센터장은 그의 저서[나귀와 말, 권총과 족구]에서 “국익과 무관한 원조는 없다. 국민 세금으로 하는 원조이기에 더욱 그렇다. 남의 나라를 도우면서 우리에게도 도움이 되면 최상이다. 하지만, 등불을 비춰주고 대가를 바라는 것은 장사일 뿐이지 친절이 아니다. 과실은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맺어진다. 눈앞의 작은 이익에 연연하다 상대의 마음까지 읽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했다. ‘나귀와 말’ 우화를 통해서 우리가 원조를 지속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역설하기도 했다. 조금 뒤쳐진다고 함께 가지 않으면 나중엔 순천향이 없고 힘들게 가게 될 것이다. 순천향의료원 국제사업팀은 지속적으로 지금 발전하고 있는 나라들의 보건의료계와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점점 더 작아지는 세계 안에서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세상을 크게 보고 나아갈 것이다. 순천향의 인간사랑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 세계인의 마음 한곳에 과실로 맺어지기를 희망하고 기다린다. ■[▶▶▶](#)



2018년 캄보디아 현장 활동(마을 주민 손씻기 교육)

순천향대, 혁신적 미래가치사업 어젠다 설정

대학혁신지원사업 1차 워크숍…지속가능 주요 사업 이정표 제시



서교일 순천향대 총장이 대학혁신지원사업 워크숍에서 대학 주요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하고 있다.

글_김지홍

순천향대학교는 지난 8월 13일부터 14일까지 서울 드래곤시티호텔 4층 백제룸에서 ‘2019학년도 대학혁신지원사업 제1차 워크숍’을 가졌다. 서교일 총장, 김승우 경영부총장, 황창순 교학부총장, 서창수 산학협력부총장 등 학교 주요 부서장과 관계자들이 모두 참석한 이 워크숍에서는 올해 4월부터 추진된 대학혁신지원사업에 대한 중간 점검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이루어졌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THE 세계대학영향력 순위(The University Impact Rankings)’ 참여 가능성을 검토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이번 워크숍에서 다뤄진 내용들은 향후 순천향대학교가 대학혁신지원사업을 추진하고 대학의 미래를 구축해 나가는데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대학혁신지원사업 위한 ‘중간평가’ 자리

주요 부서장·관계자 참석…대학 미래 위해 활발한 토론

이번 워크숍의 성격은 행사 시작과 끝을 맡은 서교일 총장의 발언에서 명확히 드러난다. 서 총장은 “혁신지원사업을 위한 워크숍이긴 하지만 학교의 미래를 위해 중요한 사업들을 모두 망라해서 논의하는 자리”라며 대학혁신지원사업의 방향이 “장기적으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어야 하고 “학생들의 욕구를 잘 파악하는 방향에서 고민을 해봐야 한다.”고 핵심을 짚었다.

서 총장은 특히 ‘THE 세계대학영향력 순위’와 관련해 바로 이 평가에 참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SDG(지속가능한 성장)와 관련된 자료를 모으고 보고서도 만들어 정리해 놓는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어 보인다.” 계속해서 “자료를 최대한 잘 모으고 SDG와 관련된 학교의 노력을 취합해보자.”고 강조했다. 이번 워크숍은 대학혁신지원사업과 관련된 첫 워크숍이었지만, 워크숍 내내 각 부서의 발표 내용을 중심으로 다양한 토론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거의 쉬는 시간이 없을 정도로 빡빡한 일정을 소화했다. 참석자들은 이틀간 쉬지 않고 계속된 강행군 속에서도 각 부서별 사업 추진 현황들을 점검하고 학교의 미래를 위해 다양한 제안을 내놓는 등 열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번 워크숍에서 다뤄진 내용들은 크게 세 가지 방향에서 큰 덩어리로 묶어볼 수 있는데, 하나는 대학의 구조개혁과 관련된 논의로 이 부분에서는 세 명의 부총장들이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 대학 구조개혁 예측 모델 ▲SIR-교학업무 추진 방향 ▲캠퍼스혁신파크선도사업 등에 관해 발제했다. 이어 현재 순천향대학교에서 진행되는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추진 현황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졌고, 이어서 융합창업학부, Factory Inside, Media Inside, 교수학습혁신센터, 교육인증관리센터 등 각 주요 사업별·부서별 추진 현황들이 상세하게 발표됐다.

워크숍 둘째 날인 14일에는 ‘THE 세계대학영향력 순위’에서 국내 대학 중 1위로 랭크된 경희대 정남호 기획조정처 부처장이 나와 사례 발표했고, 이어 연구위원들이 이 순위와 관련해 연구한 자료들을 발표하고 토론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이번 워크숍은 대학혁신지원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는데 가장 큰 비중이 놓여 있지만, 순천향대학교의 전체적인 발전 방향에 대한 모색과 여기에 ‘대학의 지속가능한 성장’이라는 개념을 추가하는 등 학교의 미래와 관련해 중요한 이정표가 되어줄 전망이다. ■

‘THE 세계대학영향력 순위 (THE University Impact Rankings)’란?

영국의 글로벌 대학평가기관인 ‘THE (Times Higher Education)’가 발표한 전 세계 대학의 평가 순위.

이 순위는 각 대학의 성취도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대학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회에 기여하는 정도(영향력)를 주요 지표로 매겨진다.

최근 대학의 사회적 책무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추세에 맞춰 UN이 지정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위해 노력하는 대학들을 세계 최초로 평가했다. 551개 기관을 대상으로 11개 항목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며 캐나다·영국·스웨덴 대학들이 최상위권에 올라 있다.

대학혁신지원사업은?

지난해 3월 발표된 ‘대학 재정지원사업 개편 계획’에 따른 교육부의 일반재정지원사업. 대학의 자율 혁신을 통해 혁신 성장의 토대가 되는 미래형 창의인재 양성체제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존에 정부 주도로 추진되어 오던 다양한 목적형 사업을 대학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편했다. 대학의 경쟁력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순천향대 서울병원 'Best of the Best' 인정

보건복지부 의료 질 평가 '1-가' 최고등급, 평가대상 중 상위 2%

글·사진_편집부

순천향대 서울병원(원장 서유성)은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9 의료질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1-가'를 받았다. 의료 질 평가는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제공하는 의료서비스 수준을 측정해 의료기관별로 평가 및 등급화 하는 제도로 이번 의료 질 평가는 전국 337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순천향대 서울병원은 △의료 질과 환자안전 △의료전달체계 △공공성 평가 영역에서 1등급 중에서도 최고 등급인 '1-가' 등급을 획득했다. 위 세 개 영역에서 '1-가' 등급을 받은 의료기관은 총 7개 병원이며 상위 2%에 해당된다. 4년 연속 의료 질 평가 1등급을 받은 순천향대 서울병원은 2018년에는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평가 대상 322개 기관 중 12위를 기록한 바 있다.



주요 암 질환 평가·간호등급 평가·응급의료기관평가 등에서 1등급

순천향대 서울병원은 그동안 유방암, 위암 등 주요 암 질환 평가에서 1등급, 중증질환자 및 희귀난치질환자의 구성비가 월등히 높고 경증질환자는 회송을 잘하는 병원, 간호등급 1등급, 3년 이상 경력 간호사의 비율을 높게 유지하는 등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왔다. 2018년 응급의료기관평가에서는 1등급(서울 1위, 전국 2위)을 받았고, 올해에도 지역응급의료기관 평가에서 A등급을 받아 안전한 병원, 고품질 진료, 고객만족 진료를 구현하고 있다.

특히 정부정책을 적극 활용해 성장과 발전을 견인하고 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확대 운영,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의 선도적 참여, 환자안전시스템 구축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또 의료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2016년부터 시행해 현재 222병상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에 따라 신규 인력도 100여명 가까이 충원, 고용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 무엇보다 적정 인력이 환자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직원은 물론, 환자와 보호자들의 만족도가 높아졌다. 신포괄수가제는 2018년 8월부터 시범사업에 선도적으로 참여해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줄였다. 지난 2년 동안 시행한 결과, 환자의 본인 부담은 25% 정도 감소했고, 병원 수익은 8%가까이 증가하는 효과를 보이고 있다.

환자안전시스템 구축 확대와 진료협력체계 기능 강화

또한 안전한 병원을 위해 환자안전시스템을 정립해 나가고 있다. 지난해 7월 소방안전관리 모범사업장에 선정된 것을 비롯해 소방훈련, 재난대응훈련, 환자안전 리더십라운딩을 통해 안전한 병원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고 있다. 수혈과 채혈, 검체 분야에서 환자인식시스템을 도입해 보다 정확한 진료를 보장한다. 환자 안전을 위해 올 초부터 전 병동에 스프링클러를 순차적으로 설치하고 있다. 중환자실과 신생아중환자실의 간호등급을 1등급으로 상향 유지함으로써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해서는 진료협력센터를 활성화하여 1천여 개 협력병의원을 포함한 1, 2차 의료기관과 진료의뢰 및 회신, 회송(전원)을 통해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고 있다. EMR정보와 전화 기능을 통합한 CTI(Computer Telephony Intergration) 시스템을 적용, 진료의료기관의 정보를 확인하는 시간을 단축해 최상의 진료협력서비스를 제공한다. 2008년부터는 용산구의회 연수강좌를 매년 4회 지원하고 있으며, 협력병원 행정책임자를 대상으로 행정포럼을 연 1회 개최하여 유기적인 관계를 도모하고 있다.

서유성 순천향대 서울병원장은 “우리 병원은 규모는 크지 않지만 선도적인 정부 정책 참여와 혁신적인 노력으로 성장과 발전을 지속하고 있다.”며 “환자와 직원 모두가 만족하고 함께 성장하는 고 하이어(Go Higher) 정신으로 최고의 병원, 강한 병원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순천향대 서울병원은 △의료 질과 환자안전 △의료전달체계 △공공성 평가 영역에서 1등급 중에서도 최고 등급인 '1-가' 등급을 획득했다. 위 세 개 영역에서 '1-가' 등급을 받은 의료기관은 총 337개 병원중 7개 병원이며 상위 2%에 해당된다.”

뇌졸중, 최고 의료진·시설·장비로 골든타임 사수한다!

순천향대 부천병원, 부천시 유일 ‘대한뇌졸중학회 주관 뇌졸중센터 인증’ 획득

글·사진_부천병원 홍보팀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뇌졸중센터(센터장 김범태)가 최근 대한뇌졸중학회 주관 ‘뇌졸중센터 인증(PSC: Primary Stroke Center)’을 부천시 의료기관 중 유일하게 획득했다. 인증 자격은 3년간 유효하다. 뇌졸중센터 인증제도는 뇌졸중 환자에 대한 안전망 구축을 위해 대한뇌졸중학회가 2018년 9월부터 실시하고 있다. 평가단이 병원을 방문해 뇌졸중 환자 진료에 적합한 인력, 시설, 장비, 체계를 갖추고 있는지 평가 후 인증한다.

순천향대 부천병원은 이번 평가에서 ▲뇌졸중팀 구성 ▲뇌졸중 집중치료실 운영 ▲뇌졸중 응급환자 진료체계 ▲표준 진료지침 준수 ▲환자 데이터베이스 관리 ▲CT 등 주요 의료장비 24시간 사용가능 여부 ▲재활치료 연계프로그램 운영 등 뇌졸중 환자 진료시스템이 우수하다고 인정받았다.



김범태 뇌졸중센터장이 뇌혈관개통술을 하고 있다.



순천향대 부천병원 뇌졸중 집중치료실

“부천병원 뇌졸중센터는 뇌졸중 환자의 골든타임을 사수하기 위해 의료진, 진료시스템, 치료시설, 장비 등을 최고 수준으로 갖추고, 끊임없는 연구를 통해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환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다학제 전문의 협진시스템, 최고의 시설과 장비 뒷받침

순천향대 부천병원 뇌졸중센터는 신경외과·신경과·응급의학과·영상의학과·재활의학과 등 다학제 전문의가 참여하는 협진시스템을 운영하고, 뇌질환 진단과 치료를 위한 시설과 장비를 최고 수준으로 갖췄다. 특히 2013년부터 뇌혈관내수술학회 지정 ‘뇌혈관내수술인증기관’으로 뇌혈관내수술 전문 신경외과 인증의가 급성기 뇌졸중 환자에게 24시간 언제든지 시술 할 수 있으며, 최단 시간 내 뇌혈관개통술이 가능하다. 뇌졸중 집중치료실은 환자의 신경학적 증상과 활력 증후 등을 24시간 집중 관찰하는 4개의 모니터링 병상을 갖추고 전담 인력이 밀착간호를 제공한다. 김범태 뇌졸중센터장은 뇌혈관수술 등을 용이하게 하는 ‘수술용 보조테이블’과 ‘하이브리드 오퍼레이션 테이블’ 등 다수의 특허를 등록하고 이를 의료현장에 적용하고 있다. 센터 내에는 뇌신경질환 관련 소책자와 리플릿 등을 비치하여 환자나 보호자들이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다.

7회 연속 뇌졸중치료 평가 1등급

순천향대 부천병원은 지난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급성기 뇌졸중 적정성평가’에서 종합점수 100점 만점으로 상위 20% 최우수기관에 포함됐으며, 2005년부터 시행된 총 7번의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1등급을 모두 받아 ‘뇌졸중 치료 잘하는 병원’으로 인정받고 있다.

김범태 뇌졸중센터장은 “우리 센터는 뇌졸중 환자의 골든타임을 사수하기 위해 의료진, 진료시스템, 치료시설, 장비 등을 최고 수준으로 갖추고, 끊임없는 연구를 통해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환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이번 뇌졸중센터 인증은 우리 센터가 뇌졸중 환자에게 우수한 의료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음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뇌혈관 환우와 가족을 위한 특강 및 연예인 초청공연 열어

한편, 순천향대 부천병원 뇌졸중센터는 10월 4일 순의홀에서 ‘제14회 뇌혈관 환우회’를 열었다. ‘뇌동맥류 코일색전술’을 주제로 열린 이번 환우회는 순천향대 부천병원에서 뇌동맥류 치료를 경험한 환자와 가족들이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1부는 뇌졸중의 내과적 치료(이승재 신경과 교수), 뇌동맥류 치료(이주석 신경외과 교수), 비파열성 뇌동맥류 관리(신동성 신경외과 교수) 등에 대한 강연이 진행됐으며, 2부는 방송인 김구라, 가수 남태현, 마술사 최현우 등이 특별공연을 펼쳐 참석자들에게 즐거운 시간을 선물했다. SCH



순천향대 부천병원 제14회 뇌혈관 환우회

충남 경찰관 · 소방관의 건강과 업무효율 증진에 앞장



충남지방경찰청 마음동행센터 업무협약식



충남119구급대원 응급처치 교육



천안동남소방서 업무협약 체결

천안병원은 충남경찰과 소방관들의 건강과 업무효율 증진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충남지방경찰청과 함께 마음동행센터를 운영하며 충남 경찰관들의 마음건강을 보살폈다. 한편, 충남지역 119 구급대원들의 응급처치역량 증진 교육도 수년째 도맡아 오고 있다. 최근에는 천안동남소방서와 함께 정부의 현장응급처치범위 확대 사업도 시작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밤낮없이 사고현장과 구호현장에 뛰어드는 경찰관과 소방관들의 존재는 더없이 귀중하다. 보물 같은 그들이 건재하도록 뒤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는 천안병원이 순천향의 명성과 가치를 더욱 빛내고 있다.

‘마음동행센터’, 충남경찰 마음건강 보살핀다

천안병원이 충남지역 경찰관들의 마음건강을 보살피는 ‘마음동행센터’를 개설하고 운영 중이다. 충남지방경찰청과 함께 운영하는 ‘마음동행센터’는 직무로 인해 발생한 경찰관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트라우마), 불면증 등을 전담해 치료하는 전문센터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이화영 교수, 센터장)가 직접 운영하며, 센터에는 2명의 심리상담사가 상주해 충남지방경찰청에서 의뢰한 경찰관들에게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상담 및 심리치료를 제공한다.

충남119구급대원 응급처치 능력 향상교육 전담

천안병원은 2015년부터 충청남도 119구급대원들의 응급처치 역량 강화 교육 전담기관으로서 매년 다양한 교육들을 실시해오고 있다. 천안병원 응급의학과 교수진은 충남 16개 시군의 소방서를 대상으

로 ▲병원전 술기 워크숍 ▲환자분류, 신체진찰 및 활력징후 측정 워크숍, ▲기도 관리 워크숍 ▲심전도 워크숍 등 실제상황을 가정한 실습위주의 교육을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최근에도 9월 23일과 10월 7일 양일에 걸쳐 임신부와 신생아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능력을 높이기 위해 ▲임산부 환자(자간증) 환자평가·응급처치 ▲출산 및 응급분만 ▲신생아·영아·소아·유아 환자평가 ▲신생아 환자 심정지 응급처치 등의 교육을 실시했다.

119특별구급대 운영관련 업무협약 체결

천안병원은 9월 4일에는 ‘119구급대원 업무범위 확대 시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천안동남소방서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119구급대원 업무범위 확대 시범사업’은 병원이송 전 현장 응급의료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 119구급대원의 응급처치 범위를 늘려 시행하는 것이다. 그동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3조)’은 119구급대원들의 응급처치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심정지, 응급분만, 중증외상 등의 환자 구호활동에 애로사항이 많았다. 제한이 풀리는 응급처치 행위는 ▲심장질환 의심환자에 대한 12 유도 심전도측정 ▲응급분만 시 태줄 절단 ▲중증외상환자 진통제 투여 ▲아나필락시스(중증 알레르기 반응) 환자 강심제 투여 ▲심정지 환자 심폐소생술 시 강심제 투여 ▲산소포화도·호기말(날숨) 이산화탄소 측정 ▲간이측정기를 이용한 혈당 측정 등이다. 시범사업에서 천안동남소방서는 늘어난 응급처치를 담당할 ‘특별구급대’를 편성 운영하고, 천안병원은 특별구급대의 응급처치활동 지원과 피드백, 전문성 향상 교육을 담당한다. 

바이오 메디컬 산업 선도하는 순천향대 천안병원

‘혁신형 의과학자 융합연구센터’ 개소

천안병원은 지난 6월 선정된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혁신형 의과학자 공동연구사업’의 원만한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혁신형 의과학자 융합연구센터’를 최근 개소했다. 센터는 2022년까지 바이오-메디컬 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의사인 신진 의과학자를 양성하고, 임상과의 연구자 간 협업연구를 통해 임상현장 아이디어에 기반한 맞춤형 의료기술 연구·개발을 진행한다. 센터가 진행 중인 10개의 국책과제는 다음과 같다. ▲신진외과학자 양성 연구역량 강화세부 ▲대장암 복막전이 치료를 위한 세포 투과성 펩타이드-약물 결합체 개발연구 ▲신나노 전달체의 암세포 사멸 기능을 이용한 난치성 뇌신경교종의 새로운 항암프로토콜 정립 ▲다양한 수면장애 형태에 따른 알츠하이머병 예측 및 예방 모델 개발 ▲소아의 재발성 상기도 감염 치료를 위한 선천 면역조절제 개발 ▲간세포암종 특이 혈관내피세포 바이오마커 발굴을 통한 표적 치료 유전체학적 기반 연구 ▲난소암에서 엑소좀의 암세포 교류 네트워크 분석에 의한 조기진단 기술 개발 ▲머신러닝 기반의 중환자실 혈당조절 자동화 시스템 구축 ▲만성신장병 신바이오마커 기반 단백질칩 및 RNA칩 개발 ▲일회용패치 기반의 환자모니터링시스템 개발센터는 8월 30일 병원 강당 송원홀에서 개소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과제별 상세내용을 교수진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생애 첫 연구사업’ 7과제 선정

천안병원 교수 7명이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연구재단이 지원하는 2019년도 하반기 ‘생애 첫 연구사업’ 과제 수행자로 선정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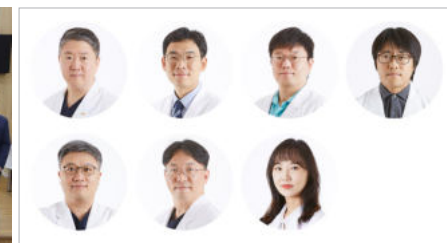
다. ‘생애 첫 연구사업’은 연구역량을 갖춘 신진연구자에게 연구기회를 제공하고, 초기 연구정착을 돕는 정부사업이다. 선정된 교수와 연구과제는 ▲슬관절 반월상연골 후방기시부 방사상 파열에 대한 새로운 봉합술기의 개발(정형외과 권세원) ▲비지도 학습 기술을 활용한 병원 밖 심정지 환자 발생 예측 모델과 심정지 치료 전략 개발(응급의학과 문형준) ▲IgA 신장병에서 Selenium binding protein-1(SBP-1) 의존적 신장 손상 기전 연구(신장내과 박삼열) ▲면역억제제 sirolimus와 항암제인 paclitaxel 방출형 풍선카테터의 동맥 평활근세포 과증식 억제 효과 연구(심장내과 박상호) ▲3D 프린팅을 이용한 두개저 뇌 내시경 수술을 위한 약물 방출성 트로카의 개발(신경외과 오혁진) ▲중심 장액성 맥락망막병증 환자에서 microRNA 관련 진단적 바이오마커의 발굴(안과 조인환) ▲초음파 검사 영상을 이용하여 지방간과 간섬유화의 정량적 평가를 제공하는 딥러닝 모델 개발: 약식 간 자기공명영상과의 조합(영상의학과 황정아) 등이다.

의사소통 약자를 위한 소통기술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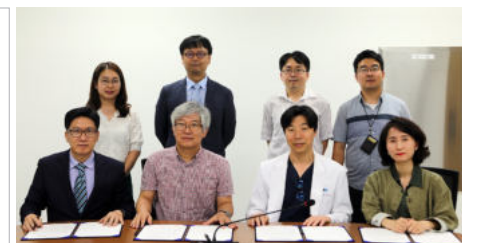
천안병원은 최근 순천향의생명연구원 회의실에서 나사렛대학교, 광주과학기술원, ㈜솔루게이트와 ‘의사소통 약자를 위한 소통기술 개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의사소통 약자란 청각장애·언어장애·지적장애·발달장애 등의 문제로 인해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말한다. 천안병원은 세 기관과 함께 의사소통 약자들의 상태, 표정, 단어, 목소리 톤, 주변 환경 등 음성·행동을 분석해 전달 의도와 감정 등 언어로 변환해내는 ▲비음성 기반의 대화상황 인지 기술과 ▲음성 기반의 대화지원 도우미봇 등 개발을 진행한다. 



혁신형 의과학자 융합연구센터 개소기념 심포지엄 개최



생애 첫 연구사업 선정 교수 7인



의사소통 약자를 위한 소통기술 개발업무 협약 체결

‘인간사랑’으로 개원 이래 1200만 명 진료

순천향대 구미병원, 개원 40주년 기념 교직원 한마음 대회 개최

글·사진_구미병원 홍보팀

구미병원은 지난 8월 23일(금) 개원 40주년을 맞아 호텔 금오산에서 교직원 한마음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는 이철우 경북도지사과 장세웅 구미시장 등 각계 기관장을 비롯하여 김성구 재단이사장, 서교일 총장, 황경호 의료원장, 재단 산하 4개 병원장 등 500여 명의 교직원들이 참석하였다. 이날 행사는 교직원 특강을 시작으로 순천향의 40년 홍보영상 상영, 주차장 및 외래관 증축 보고, 감사패 증정, 구미 필하모니 현악 오케스트라 축하공연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임한혁 병원장은 기념사를 통해 “40년간의 역사를 기반으로 선배들이 쌓아 놓은 전통을 이어가고 설립이념인 인간사랑을 바탕으로 나아갈 100년을 힘차게 준비하자”며, “경북 중서부권 최고의 환자중심 거점병원이 되기 위해 900여 명의 교직원이 다함께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



김성구 재단이사장, 서교일 총장, 황경호 의료원장 외 4개 병원 보직자



왼쪽부터 서유성 서울병원 병원장, 김성구 재단이사장, 임한혁 구미병원 병원장, 서교일 총장, 황경호 의료원장, 이문수 천안병원 병원장, 신응진 부천병원 병원장

“
설립이념인 ‘인간사랑·환자사랑’을
몸소 실천하는 순천향대 구미병원”
”

지역 최초의 종합병원으로 개원

순천향대학교 구미병원은 구미공단 설립초기인 1979년 9월 1일 설립자 이신 향설 서석조 박사의 ‘인간사랑·환자사랑’의 순천향 정신을 바탕으로 지역 최초의 종합병원으로 개원하였으며, 개원 이후 지금까지 입원 및 외래환자 1천2백만 명을 진료했다. 특히 신생아출생 8만2천 명과 300만 명의 근로자검진 등을 통해 지역민의 건강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 이로써 순천향대 구미병원은 명실상부한 경북 중서부권 최고의 거점병원으로 성장해왔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순천향대 구미병원

개원 초부터 35년간 매월 이어온 ‘무의촌 의료봉사’와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햇살아이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어 지역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 의료사각지대 환자들을 위한 ‘301네트워크 지원사업’과 교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취약계층 의료비지원사업’ 등을 통하여 설립이념인 ‘인간사랑·환자사랑’을 몸소 실천하고 있다. 특히 개원 40주년을 맞아 협력병의원과 지역소방서 구급대원 등을 대상으로 ‘협력병의원 만남의장’과 ‘뇌신경센터 심포

지엄’을 개최하였으며, 호국보훈의 달에 ‘보훈단체 무료건강진’ 실시를 비롯하여 5차례의 ‘지역민을 위한 무료 건강강좌’를 개최하는 등 각종 행사를 통하여 지역민의 건강 증진과 유대관계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지역민을 위한 무료 건강강좌



무의촌 의료봉사



제8차 뇌신경센터 심포지엄

주차장 증축공사로 주차불편 해소와 2,000여 평 규모의 외래관 증축공사 진행

또한 지난 7월에 숙원사업이었던 주차장 증축공사가 완료되어 내원객들의 주차불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 이어서 2,000여평 규모의 외래관 증축공사를 통해 집환 중심의 전문센터와 클리닉으로 재배치하여 지금보다 훨씬 쾌적하고 전문화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준비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지역민이 믿고 찾을 수 있는 경북 중서부권 최고의 거점병원이 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오늘 하루 살아 있음에 감사합니다”

부천병원 안미령 환자, 출근 첫날 생명의 은인
김범태 교수 얼굴 떠올라 감격



글_정재학 사진_임수혁

2017년 한 해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12월 어느 날 새벽, 집에서 자고 있던 안미령 씨(46)는 외마디 비명과 함께 의식을 잃었다. 가족들이 달려와서 보니 눈이 뒤집히고 입은 거품을 물고 있었다. 119에 전화를 해서 응급조치를 취한 후 집 근처 순천향대 부천병원으로 옮겼다.

안 씨는 얼마 전부터 머리 뒤쪽이 빠근한 느낌이 있었다. 설마 했는데 예상치 못한 큰 문제가 터진 것이다. 뇌출혈 이었다.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큰 혈관들이 지나다니는 통로에 발생한 박리성 동맥류에서 출혈이 생긴 것이다. 검사 결과, 출혈 부위가 수술하기 매우 까다로운 위치였다. 의사들도 수술이 어렵겠다며 고개를 저을 정도였다. 무거운 책임이 신경외과 김범태 교수의 손끝에 맡겨졌다.

다행스럽게도 김 교수의 집도 아래 뇌동맥류 코일색전술은 성공적으로 끝났고, 안 씨도 의식을 되찾을 수 있었다. 갑작스럽게 쓰러졌던 그날 새벽부터 수술이 끝나서 깨어나는 순간까지 안 씨는 전혀 기억이 없었다. 그 긴 시간 동안 내내 삶과 죽음을 오가는 끔찍한 악몽에 시달리고 있었다.

“깨어난 후에도 자꾸 헛것이 보여서 힘들었어요. 가족들에게도 엉뚱한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하지만 수술에서 깨어난 저를 보면서 환하게 웃어주시던 김범태 교수님의 모습은 또렷하게 기억이 납니다. 자상한 목소리로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기분이 정말 좋았어요. 아, 내가 니을 수 있겠구나 하는 확신과 믿음을 갖게 됐죠.”

안 씨는 비로소 그를 괴롭히던 기나 긴 악몽에서 깨어날 수 있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지만 합병증으로 인해 한동안 고생을 했다. 건물이 옆으로 쓰러져 보일 정도로 눈 상태가 좋지 않았고 다리에 힘이 없어서 계단에서 구르기도 했다. 안과, 정형외과, 중앙혈액내과를 돌아다니며 치료를 받아야 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삶, 떨어져 지내던 가족들과 함께 지내기로 마음먹고 퇴원 후 부천을 떠나 보령으로 이사를 갔다. 이사로 인해 외래 진료가 있을 때마다 병원 오는 길이 더욱 멀어졌다. “환자들은 의사의 몸짓 하나, 손짓 하나, 말 한 마디에도 심리적인 상태가 크게 요동칩니다. 김 교수님은 그런 와중에도 늘 의연한 자세로 제 몸 상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주셨죠. 가족들에게 위로를 넘어 큰 신뢰까지 안겨주셨어요.”

김 교수는 환자의 상태는 물론 아이들 이름은 어떻게 되는지, 가족들은 잘 지내는지, 몸이 아파 일을 못하는데 생활은 어떻게 하는지도 걱정스럽게 물어봤다.

“여러 병원에 다녀봤지만 그런 걱정까지 해주신 의사 선생님은 처음이었습니다.”

몸도 아팠지만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입장에서 경제적 인 고통으로 인한 가슴앓이도 심했다. 수술 후 1년 반 정도가 지난 시점, 마지막 MRI 검사가 끝나고 나서 안 씨는 김 교수에게 이제는 일을 해도 좋을지 조심스럽게 물었다.

“네, 이제 조금씩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비로소 일상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에 감격했다. 안 씨는 당장 일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다. 무슨 일이라도 좋았다. 다행히 집 가까운 곳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았다. 새로운 직장을 구해서 첫 출근한 날, 감격스러운 마음과 함께 생명의 은인과의 같은 김범태 교수의 얼굴이 떠올랐다. 뭔가 선물을 하고 싶었지만 무엇을 좋아할지 몰라 고민했다. 마음만이라도 먼저 전하고 싶었다. 퇴근하고 집에 돌아와 컴퓨터를 켜고 조용히 병원 게시판에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건강하세요. 김범태 교수님. 날마다 좋은 삶은 아니어도 오늘 살아 있음에 감사합니다.”

말로는 다 하지 못했던 감사의 인사를 전할 수 있어서 행복했다. 안 씨는 인터뷰를 위해서 취직한지 한 달도 되지 않은 직장에 과감히 휴가를 내고 병원을 찾았다. 고마움과 행복이 가득 묻어 있는 얼굴이었다. 



김범태 교수 순천향대 부천병원 신경외과
전문진료분야: 뇌출중, 경동맥류클리닉, 뇌혈관조영술, 모야모야병, 안면마비떨림

오랜 친구 같은 지역 근로자의 ‘건강 지킴이’

원내검진팀

사업장 대상으로 한
특수검진 강점

원내검진팀의 윤효정 계장은

“표준화된 시스템을 통해 본원의 여러
과와 연계되어 있다”며 “이를 통해
효율적이고 종합적으로 검진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말했다.

글_정재학 사진_임수혁

구미는 각종 공장들이 밀집해있는 산업도시다. 지역 특성상, 기업과 관련된 검진 수요가 많은 편이다. 순천향대 구미병원 검진팀은 원내검진, 출장검진, 작업환경측정, 보건관리대행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종합검진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40년의 오랜 역사와 함께 지역 근로자들의 건강 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딩동”

오전 8시, 병원 업무를 알리는 벨소리와 함께 원내검진팀도 분주해지기 시작한다. 이곳은 병원 내에서 가장 빨리 하루를 시작하는 곳이다. 접수대에서는 이른 아침부터 검진을 받기 위해 병원을 찾는 사람들로 북적거린다. 원내검진팀의 주 업무 중 하나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일반검진이며 키, 체중 등 신체계측부터 시력 및 청력검사, 혈액검사, 소변검사, 방사선 촬영과 치과검사를 동시에 실시한다. 각 해당과와 연계해 위암, 간암, 폐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등 국가 6대 암에 대한 검진도 함께 실시하고 있다. 원내검진팀의 가장 큰 특징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특수검진이다. 특수검진은 유해인자를 취급하거나 소음부서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검진으로 배치전 검진과 배치후 검진으로 나누어진다.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해당 업무에 투입할 때 업무 적합성 평가를 위한 배치전 검진, 업무 시작하고 일정기간 후 발생될 수 있는 건강상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배치후 검진이다.

또한 직업병에 대한 진단 및 원인분석과 예방을 위해 각 사업장과 연계하여 원활한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며 산업재해와 질병으로 인한 근로자의 업무 복귀를 위한 업무적합성평가 등 외래 업무도 실시하고 있다. 더불어 사업장의 채용검진과 각종 진단서 발급과 근로자의 사후건강관리를 위한 추후검사도 실시하고 있다. 원내검진팀의 윤효정 계장은 “표준화된 시스템을 통해 본원의 여러 과와 연계되어 있다”며 “이를 통해 효율적이고 종합적으로 검진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말했다. 원내검진팀은 신체계측실, 방사선실, 검사실, 치과검사실을 갖추고 있으며 교수 3명과 수련의 포함 20여명의 의료진으로 구성되어 있다.



작업환경 측정팀

최고, 최신 장비 자랑

작업환경측정팀의 권태근

과장은“ICP는 경북 인근에서는 우리
병원만 보유하고 있을 정도로 고가의
장비로 정밀도가 매우 뛰어나다”며
그밖에 “IC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장비들의 최신 기종으로 뛰어난 성능을
자랑한다”고 말했다.

오후 4시가 넘어서자, 현장으로 나갔던 작업환경측정팀 직원들이 속속 병원으로 복귀하기 시작했다. 작업환경측정이란 작업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근로자 또는 작업장에 대하여 시료를 채취하고 분석해서 유해인자에 얼마나 노출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일을 담당한다. 업무하는 모습을 지켜보다 보면 병원이라기보다 연구소 같은 느낌도 난다. 작업환경측정팀에는 실험실에서 볼 수 있는 각종 장비들이 즐비하다. 개인들이 가지고 나가는 개인 시료채취기 100여대, 소음측정기 60여대 등의 측정 장비와 측정한 유해물질을 분석할 수 있는 ICP(유도결합플라즈마), IC(이온크로마토그래피), HPLC(고속액체크로마토그래피), GC(가스크로마토그래피), UV(흡광광도계) 등의 장비를 갖추고 있다.

작업환경측정팀의 권태근 과장은“ICP는 경북 인근에서는 우리 병원만 보유하고 있을 정도로 고가의 장비로 정밀도가 매우 뛰어나다”며 그밖에 “IC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장비들의 최신 기종으로 뛰어난 성능을 자랑한다”고 말했다. 작업환경측정과 관련해서는 지역적 제한이 없어지면서 다른 지역 기관과도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됐지만 그런 경쟁 환경 속에서도 기관 평가에서 A등급을 받을 정도로 유해물질의 측정과 분석에 대한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작업환경측정팀은 산업위생관리기사 5명, 분석전담자 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유기화합물, 금속류, 산 및 알칼리류, 가스 상태 물질류, 허가대상 유해물질 금속가공유와 소음, 고열, 분진 등 190종의 유해인자에 대한 측정 및 분석을 실시하고 있다.



출장검진

버스 한 대로
끌내는 이동 검진

출장검진팀 이경희 과장은 청력검사를 위해“출장검진을 나가는 기업에 요청해서 사장실이나 회의실처럼 가장 조용한 곳을 골라서 검사를 실시한다”며 하지만 다른 검진 장비와 달리 떨어진 곳에 따로 세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수검자의 거리가 좀 멀어지기 것이 단점이다.

출장검진은 업무 때문에 병원으로 오기 힘든 근로자들을 위해 사업장으로 직접 출장을 나가서 실시하는 검진이다. 신체 계측부터, 혈압 측정, 청력검사 혈액 검사, 심전도와 폐활량 검사, 그리고 문진까지 암 검진을 제외한 통상적인 검사가 모두 가능하다. 45인승 버스에 검진장비를 싣고 가서 해당 기업으로부터 식당이나 회의실 등의 장소를 제공 받아 사업장 공정 흐르듯이 세팅을 해놓고 검사를 진행한다. 출장검진팀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짐 옮기기다. 출장검진 특성상 버스에 무거운 검진장비들을 싣고 내리는 일을 반복해야 하는데 여직원의 비중이 높다보니 힘든 일이 많을 수밖에 없다. 이동 중 측정장비들이 옮겨지는 과정에서 매일 신체계측기, 혈압계, 청력기, 폐활량기 등 검진을 위한 장비가 균일하고 정확하게 측정되는지‘정도관리(精度管理)’에 신경을 쓰고 있다.

출장검진에서 가장 아쉬운 점은 청력검사다. 병원 내에서는 청력검사를 할 경우는 소음이 차단된 검사용 부스가 있지만 출장을 나가면 일일이 들고 나갈 수가 없기 때문이다. 출장검진팀 이경희 과장은 청력검사를 위해“출장검진을 나가는 기업에 요청해서 사장실이나 회의실처럼 가장 조용한 곳을 골라서 검사를 실시한다”며 하지만 다른 검진 장비와 달리 떨어진 곳에 따로 세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수검자의 거리가 좀 멀어지기 것이 단점이다. 출장을 마치고 돌아와도 끝난 것은 아니다. 사무실로 돌아와서 검진 자료를 취합해 전산에 입력한다. 오래 일을 하다 보니 마치 ‘단골집’ 같은 친근함을 주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출장검진팀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3명과 전공의 3명, 간호사 11명, 간호조무사 1명, 임상병리사 2명이며, 진단검사의학과와 영상의학과에서 10여명의 인력을 파견 받아 두팀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서로 협력하며 각종 검진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보건관리팀

장기근속자 많아
가족 같은 진료 장점

“신입사원 때부터 보기 시작했는데 벌써 임원이 된 분도 있어요. 워낙 친해서 허물없이 지내다보니 해당 기업의 직원들이 당황스러워하는 경우가 있을 정도죠.”
최근까지 보건관리팀을 맡았던 정명심 검진팀장의 이야기다.



미니인터뷰

“이직을 낮고 가족 같은
분위기가 장점”

정명심 검진팀 팀장

“우리 검진팀은 다른 병원과 달리 이직률이 매우 낮은 편입니다. 이 때문에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지만 장점이 더 많죠. 하나라도 더 빨리 익숙해지도록 가르쳐주려고 하는 조직 문화가 잘 정착되어 있는 것도 특징 중 하나입니다. 교수님들도 30년 가까이 그 부서에 계시던 분들이어서 진료의 연속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 중 하나입니다.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자 법적으로 사내에 보건관리자를 두도록 하고 있지만 중소기업 특별법을 통해 전문기관에서 위탁을 할 수 있게 했다. 외부에 전문 보건관리자를 두고 근로자들의 건강관리를 맡기는 제도다. 보건관리팀의 주 업무는 근로자의 건강관리. 상담, 교육, 질병 유소전자 사후관리 등을 담당하며 최근에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산재예방을 위한 정보 제공과 교육에 대한 비중이 20% 정도로늘어났다. 보건관리팀의 가장 큰 장점은 장기근속 간호사가 많다는 점. 한 회사에 20년 이상 계속 다니는 간호사들도 있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만나는 직원들과 관계도 마치 가족처럼 친밀하다.

“신입사원 때부터 보기 시작했는데 벌써 임원이 된 분도 있어요. 워낙 친해서 허물없이 지내다보니 해당 기업의 직원들이 당황스러워하는 경우가 있을 정도죠.” 최근까지 보건관리팀을 맡았던 정명심 검진팀장의 이야기다. 한 근로자는 항상 피곤하고 먹어도 살이 빠지는 것 같다며 보건관리팀과 상담을 진행했다. 당뇨나 간장 질환 등의 가능성을 두고 검사를 했더니 결핵인 것으로 밝혀졌다. 다행히 초기에 치료를 받아 큰 문제없이 완치될 수 있었다. 보건관리팀은 간호사 8명 산업위생기사 3명 산업의사 3명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경북중서부권 관내, 외 소재 하는 사업장 230여개소를 관리하고 있다. 

Doctor Interview

“아이들 눈에서 눈을 땔 수 없어요”

순천향대 천안병원 안과
김소영 교수

신생아 안과 선별 검사 10만 건 판독

“연구 목적으로 가볍게 시작했는데 일이 겹잡을 수 없이 커졌네요.”
순천향대 천안병원 김소영(47) 교수는 국내에서 신생아들의 눈을 가장 많이 들여다본 안과 의사로 손꼽힌다. 소아안과 전문의로 특히 소아망막과 미숙아망막병증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 안과로 의뢰가 들어오는 신생아, 특히 미숙아들의 안구 검사를 하다가 선천백내장이나 안구의 선천적인 이상 등 예상치 않았던 질환들이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신생아 안과 선별 검사에도 관심을 갖게 됐다. 선별검사란 아프고 난 후 병원에 가는 것이 아니라 간단한 검사를 통해 미리 발병 가능성을 확인하는 검사로 적은 노력과 비용으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안구 선별검사는 주로 사진 판독을 통해 실시하는데 순천향대 천안병원 뿐만 아니라 전국의 산부인과에서 태어나는 신생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개별 산부인과에 구축된 검사 장비로 아이들의 안구를 촬영, 파일로 전송하면 김 교수가 사진 판독으로 이상 여부를 확인해서 그 결과를 통보해준다. 2012년부터 매달 1500~1700명씩 신생아들의 안구 판독을 진행했으며 7년 동안 누적된 숫자가 10만 명을 넘는다. 혼자서 도저히 다 볼 수 없어서 2년 전부터는 경상도 지역의 경우 다른 의사와 나눠서 보고 있다.

“집에서 쉴 때도 보고 점심시간에 잠시 쉴 때도 틈틈이 아이들 눈 사진을 봅니다. 멀리 여행을 갈 때도 항상 노트북을 들고 다니죠.”

막 태어난 아이의 눈 사진을 찍어놓고 결과를 기다리는 부모를 보면 잠시도 지체할 수가 없다. 집에서도 노트북을 세 개씩 한꺼번에 켜놓고 일을 하기도 한다. 여러 장의 사진을 동시에 판독하면서 정리도 하고 메일도 보내야 하기 때문이다.

“선천질환은 조기발견과 조기치료가 가장 중요합니다. 안구 질환의 경우 선천적으로 갖고 태어나기도 하지만 생후 몇 달 내에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얼마나 빨리 발견하느냐가 관건이죠.”

미숙아망막병증, 선천백내장, 망막모세포종과 같은 질환은 가능하면 빨리 치료를 하지 않으면 실명하거나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선천백내장의 경우도 생후 한두 달 내에 수술을 해야 하는데 그 시기를 놓치면 수술을 해도 시력이 좋아지는데 한계가 있다. 김 교수가 선별검사를 처음 시작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 간 분석한 신생아 7만5천여 명 가운데 26%인 1만9천여 명에게서 안과적인 이상이 발견됐다. 대부분(98.1%)은 망막 출혈로 후유증 없이 출혈이 흡수되었지만 출혈양이 많았던 일부 아이들의 경우 근시, 약시 등이 발생한 경우도 있었다. 심각한 안과적인 이상이 있었던 경우도 365명이었으며 이러한 환자들은 즉시 상급병원 안과의 진료를 받도록 했다. 그중에서 선천백내장 37명, 망막모세포종이 12명에게서 발견됐다.

“조기 발견, 조기 치료로 아이들의 눈이 좋아진 상태를 보는 것은 이 일을 하면서 가장 큰 보람이죠.”

김 교수는 이런 전문성을 인정받아 중국의 신생아 관련 학회나 대형 병원의 초청을 받아 강의를 하기도 하고 해외 학회나 심포지엄을 통해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최근에는 미숙아망막병증에 대한 새로운 치료법의 임상(3상)이 전 세계 100개 병원에서 동시에 진행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3개 병원이 선정됐는데 그 중 하나가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이다. 미숙아망막병증환자의 치료와 관리, 병원의 효율적인 시스템에서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은 셈이다.

소아 사시(斜視) 100명 당 2~3명 앓는 흔한 질병

소아안과에서는 소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질병을 다루고 있다. 미숙아망막병증, 선천 안질환, 소아백내장, 성형안과 수술 부문에서 인정을 받고 있지만 가장 수술 건수가 많은 것은 단연 사시(斜視)다. 소아는 물론 성인들까지도 사시 수술을 많이 받고 있다. 소아사시는 100명당 2~3명이 앓고 있을 정도로 흔한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지식부족으로 많은 아이들이 방치되거나 치료시기를 놓치고 있다. “사시의 경우 선천적인 경우도 있고 후천적인 경우도 있는데 아직 원인이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태지만 제 때 치료하면 대부분 완치됩니다.”

사시 수술은 안구를 붙잡고 있는 근육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다. 눈 움직임과 관련된 근육이 양쪽 눈에 각각 여섯 개씩 세 쌍을 이루고 있는데 이 근육을 통해서 양 눈의 균형을 유지한다. 이를 위해 근육의 위치를 바꾸어주거나 잘라서 붙이거나 당기는 작업이 이루어진다.

“사시는 남다른 외모로 인해 아이들의 마음을 위축시키고, 자신감도 상실시켜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방치하지 말고 제때에 제대로 치료해줘야 합니다.”

지방에는 소아사시 치료 전문가가 흔치 않은 편이다. 김 교수는 천안은 물론 전국에서도 주목받는 안과 전문의다. 그의 소아사시클리닉은 방학이면 항상 어린이 환자들로 북적인다. 각종 전문 검사를 시행하고, 검사 후 정확한 진단을 통해 안경착용, 눈가림치료 및 사시 교정 수술까지 체계적으로 치료한다. 최근 소아용 전기 생리학 검사 장비의 도입으로 협조가 어려운 어린 영유아에서도 시기능의 상태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게 되었고, 소아용 영상 촬영 장비 등 소아를 위한 첨단 검사 장비들을 갖추고 있다.

순천향대 천안병원 안과는 6명의 전문의가 서로 협력하며 환자를 보고 있으며 열정적인 전공의, 5명의 숙련된 간호사, 4명의 검사실 직원, 5명의 외래 직원이 화기에매한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다. 최신식 눈물지질층 검사기(K5M), OCT 혈관조영술기, 레이저 안착장 측정기, 3차원 안구단층촬영기 등 첨단 검사 장비와 수술 장비도 두루 갖추고 있다.

“세 돌 때 꼭 보자”

김 교수의 진료실 책상 옆에는 아이들이 좋아할만한 인형들이 놓여 있다. 진료를 받다가 우는 아이들이 있으면 달래주기 위해 비치한 ‘소품’이다.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진료와 수술은 어른보다 어렵다고 하지만 김 교수는 아이들을 워낙 많이 만나서 그런지 아이들도 능숙하게 잘 달래는 편이다. 어른들은 시력이 이미 발달해있는 상황에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수술해서 잘 되면 끝이지만 아이들은 수술이 지나간 치료의 시작일 뿐이다. 눈에 가로 막는 것을 없애주고 나쁘게 진행하는 것을 막아주는 것이기 때문에 수술 이후 시력이 잘 발달하는지 최소한 10세까지는 지켜봐야 한다. 앞으로의 작은 계획이 있다면 사진 판독에서 출혈이 심했던 아이들의 상태를 추적 관리하는 것이다. 선별검사 후 당장 치료를 할 필요는 없지만 나중에 시신경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서 그런 아이들에 대해서는 세 돌 때 꼭 병원에 만날 오도록 권유하고 있다. 선별 검사 판독 일에 매달 리다보니 평일에는 거의 아무 것도 못하고 주말에 운동을 즐기는 편이다. 안구 사진 판독하느라 내내 사진들을 들여다보고 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개인적으로는 여행 다니면서 사진 찍는 것을 취미로 즐기고 있다. 여러 모로 ‘사진’과의 인연이 깊다. 안과 의사로서 특별한 눈 건강법에 대해서 물었지만 기대했던 것 같은 특별한 비결 같은 것은 없어 보였다. 한참을 고민하다 내놓은 비결은 “외출할 때마다 잊지 않고 꼭 선글라스를 착용한다”는 것이었다. [LIFE](#)



사회에서 받은 것 사회로 돌려줄 뿐

상훈유통 이현옥 회장



글_정재학

“큰 금액도 아니고…, 기부했다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은 조금 부끄럽습니다.”

상훈유통 이현옥 회장(81)은 그동안 여러 차례의 인터뷰 요청에도 줄곧 고사를 해왔다. 하지만 순천향 가족들만을 위한 지면이라는 설득에 어렵게 인터뷰에 응해주었다. 이 회장은 기부자이기에 앞서 순천향병원의 오랜 고객이기도 하다. 어머니부터 본인, 자녀, 그리고 손자까지 4대째 순천향병원을 이용하고 있다. 1975년 어머니의 노환 치료를 위해 처음 순천향병원과 인연을 맺었고 자신도 1977년부터 호흡기 질환 치료를 위해 병원을 찾기 시작했다. 순천향병원을 드나든 시간이 40년을 훌쩍 넘는다. 환자로 인연을 맺었던 순천향병원에 기부하기 시작한 것은 2013년부터다.

“어려운 사람을 도우면 한 사람에게만 혜택이 돌아가지만 병원을 지원하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양질의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깨달음으로 병원 기부를 시작했죠.” 처음 2년간은 2억 원씩, 이후 매년 1억 원씩 기부하면서 순천향대학교를 포함해 모두 10억 원을 기부했다. 회사 차원에서도 다양한 기부활동을 하고 있지만 개인적으로 하는 기부는 순천향병원과 순천향대학 두 곳밖에 없을 정도로 ‘순천향’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다. 이 회장은 월남전 참전용사 출신의 국가유공자다. 공직생활을 하다가 퇴직한 후 1994년 56세의 나이에 뒤늦게 유통사업에 뛰어들었다.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집을 팔아서 사업 자금을 마련했을 정도로 어려운 도전이었지만 설립 후 25년 동안 작지만 탄탄한 기업으로 성장시켰다. 이 회장은 평소 경영에 대한 세 가지 소신을 갖고 있다.

첫째, 기업은 개인의 것이 아니다. 기업의 수익은 사회로부터 나오는 것이니 이익금을 사회로 돌려주어야 한다.

둘째, 오늘의 대한민국은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분들의 헌신과 희생의 토대 위에 이룩되었다. 이들의 공헌을 잊지 않고 선양하고 지원하는 것이 국민된 의무이다.

셋째, 언제나 어머니 품과 같은 고향 농촌을 사랑하고 지원하며 도농의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일조한다.

“저는 국가 유공자로서 국가로부터 많은 것들을 받아왔습니다. 제가 받은 것을 사회에 돌려주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사회공헌활동을 해왔습니다.” 나눔을 통해서 보다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고 싶다는 것이 기업을 경영하면서 갖고 있는 소박한 꿈이다.

여건 허락하면 죽을 때까지 매년 기부하고 싶어

이 회장은 천식으로 호흡기가 좋지 않아 병원 신세를 많이 졌는데 병원에 갈 때마다 의료진들의 배려와 친절에 늘 따뜻한 마음이 들었다. “하늘의 뜻을 받들어 인술을 펼치는 고향 마을이라는 뜻과 인

간사랑, 생명존중 정신으로 운영되는 병원 분위기를 알고는 그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회장은 순천향병원의 홍보대사 역할까지 자임하고 있다. 자신은 물론 가족, 직원들에게도 건강검진과 진료를 받도록 적극 권유함은 물론 친지 및 주변 지인들을 만날 때마다 순천향병원에 대한 사랑을 입에 침이 마르도록 하고 있다. 꾸준히 관심을 갖고 지원한 병원이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도 그에게는 큰 기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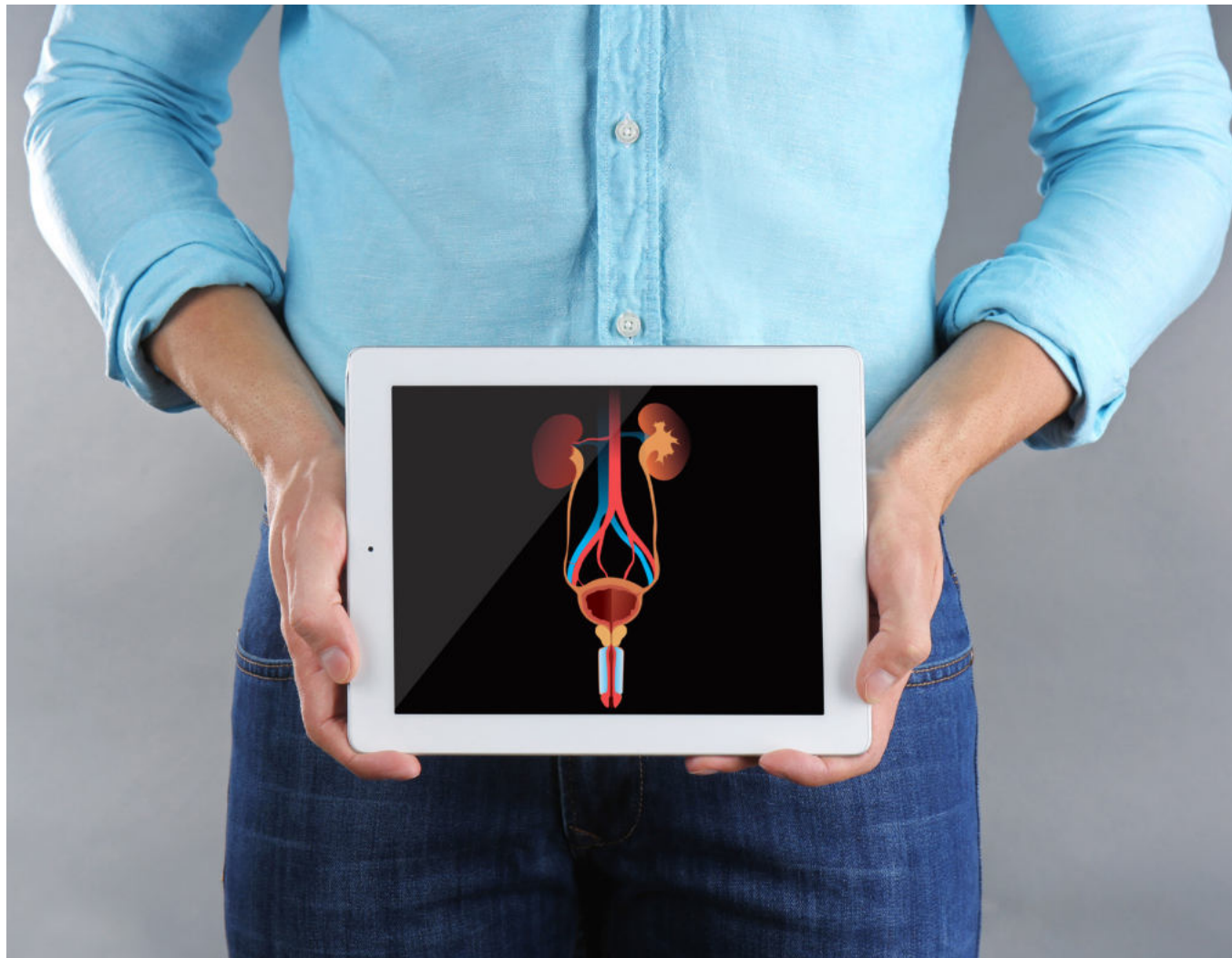
“초창기만 해도 여관 같았는데 그때와 비교하면 지금은 특급호텔이 됐죠.” 매일 아침마다 108배로 심신을 단련해왔으며 주치의의 권유로 69세에 처음 골프를 배우기 시작했다. 남들이 다 그만두는 나이에 힘들게 골프를 시작했지만 이제는 90대 초반 점수를 기록할 정도로 실력이 크게 늘었다. 팔십 세가 넘은 나이에 건강한 몸으로 기업을 운영하면서 사회활동을 왕성히 할 수 있는 비결은 모두 순천향병원 의료진들의 덕분이라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아주 작은 힘이지만 병원 발전을 위한 일에 जु다리기의 맨 끝에서라도 힘을 보태고 싶습니다.” 이 회장은 그동안의 공로를 인정받아 정부로부터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훈했고 순천향대학으로부터 명예경영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지금까지 개인과 회사 차원에서 기부한 금액만 130억 원에 이른다. “경제적인 여건만 된다면 죽을 때까지 이웃과 사회 발전을 위해 작은 밑알이라도 되고 싶다.”는 것이 이 회장의 작은 소망이다. ■E&T



전립선암, 사이버나이프 치료효과 입증

순천향대 서울병원 방사선종양학과 장아람 교수팀 연구결과



글_서울병원 홍보팀

국소 전립선암에 대한 사이버나이프 치료가 장기간 추적관찰 후에도 독성을 최소화하면서 좋은 효과를 보였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순천향대 서울병원 장아람 방사선종양학과 교수팀이 Radiation Oncology(2018년 11월호)에 발표한 논문에서 사이버나이프 방사선 수술을 받은 전립선암 환자의 치료결과와 전립선특이항원(PSA, Prostate Specific Antigen)의 변화 결과를 발표했다. 대한방사선종양학 연구위원회(KROG)의 다기관연구를 통해 2008년부터 2014년까지 국내 3개 대학병원(순천향대서울병원,인하대병원,경상대병원)에서 사이버나이프 치료한 국소전립선암 환자 88명을 장기추적 관찰한(중간값 63.8개월) 데이터를 분석했다.

“

한 번에 일반 방사선치료보다 많은 용량의 방사선을 1~5회로 나눠 주로 뇌종양, 척추종양, 전립선암, 폐암, 간암 등 원발암이나 유방암, 대장암 등 각종 전이암 등에 적용되어 수술로 제거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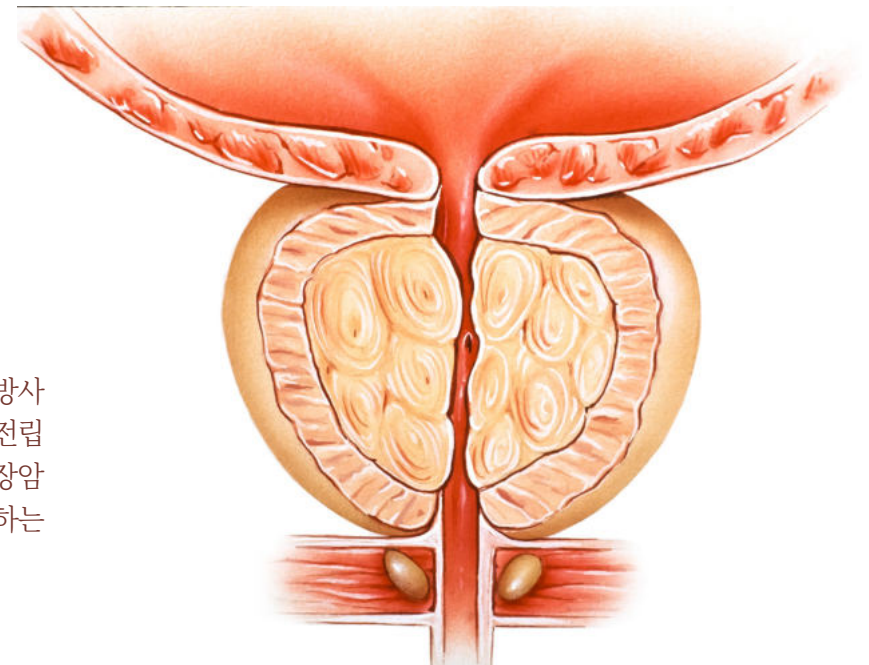
5년 무병생존 94.7%, 전립선암수치 44.8개월 동안 점진적 하강

전체 환자군의 5년 생화학적 무병생존율 (biochemical relapse-free survival)은 94.7%, 2명의 환자(2.2%)만 중등도 이상의 부작용을 경험했다.

사이버나이프 치료 후 혈중 최저 전립선 특이항원농도(PSA)는 0.00~2.62ng/mL범위(중간값 0.12 ng/mL)까지 떨어졌고 최저치까지 도달하는데 44.8개월(0.40~85.7개월 범위)이 걸렸다. 사이버나이프 후 24개월 이전에 최저치에 도달한 그룹이 24개월 이후에 도달한 그룹보다 생화학적 무병생존율이 낮은 결과를 보여 최저치에 늦게 도달할수록 치료효과가 좋았다.

장아람 교수는 “사이버나이프 수술을 받은 후 5년 동안 생화학적 재발이 4명에 불과해 장기간 치료성적이 매우 좋았다. 또 혈중 전립선 특이항원농도가 기존의 방사선 치료 후 1~2년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에 걸쳐 최저치를 보인 것과 다르게, 점진적이고 꾸준하게 낮아지면서 좋은 치료성적을 보이는 것을 새롭게 발견했다.”고 말했다.

이 연구결과는 최근에 발표된 미국과 유럽의 대규모 전향적 다기관 연구에서의 방사선 수술 성적과 비슷하며 전립선암이 고위험군과 질환이 많은 고령 환자가 많은 점 등을 고려한다면 오히려 더 좋은 결과다.



움직이는 전립선 정확한 타겟팅 가능, 고용량 방사선 4~5회로 부작용 최소화

사이버나이프는 움직이는 장기를 포함한 전신에 발생한 악성 및 양성 종양을 정밀하게 조준하여 정확하게 제거하는 로봇 방사선 치료기이다. 한 번에 일반 방사선치료보다 많은 용량의 방사선을 1~5회로 나눠 주로 뇌종양, 척추종양, 전립선암, 폐암, 간암 등 원발암이나 유방암, 대장암 등 각종 전이암 등에 적용되어 수술로 제거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낸다. 특히 전립선암 치료 시 사이버나이프의 지속적인 영상 유도장치와 전립선의 위치가 정확하게 자율 교정되는 추적 시스템을 통해 방광, 요도, 직장 등 주변장기의 방사선 노출을 가장 정밀하다는 방사선 근접치료(brachytherapy)의 수준까지 최소화할 수 있다. 또한 근접치료와는 다르게 비침습적이어서 환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도 움직이는 전립선에 대한 정확한 타겟팅이 가능하여 고용량의 방사선을 4~5회의 적은 치료 회수로 나눠 치료해도 부작용이 적으면서 최상의 치료결과를 낼 수 있다.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은 2008년부터 사이버나이프를 도입하여 11년간 암환자의 생존율을 높이고 있다. 2019년 하반기에 국내 최초로 도입되는 VOLO™ optimization system과 다엽콜리메이터(InCise™ Multileaf Collimator)를 장착한 최신버전 사이버나이프(CyberKnife® M6™ FM)를 도입해 가동에 들어간다. 

순천향대 부천병원 성형외과 남승민 교수팀, 얼굴 뼈 골절 치료 분야의 패러다임 바꿀 연구 결과 잇달아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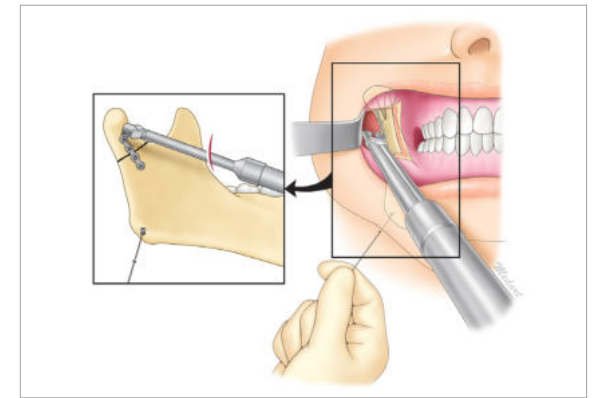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성형외과 남승민 교수팀이 얼굴 뼈 골절 치료 분야에서 새 수술법의 우수성과 안정성을 입증하는 논문을 잇달아 발표하는 등 큰 성과를 내고 있다.

구강 내 접근 통한 하악골 과두하 골절 치료의 우수성 입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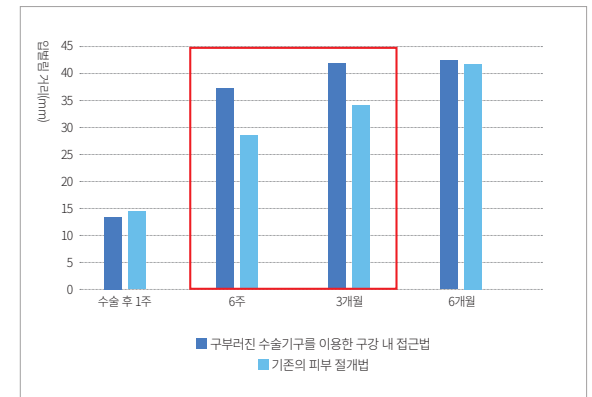
남승민 교수팀은 하악골 과두하 골절을 피부 절개 없이 치료

하는 수술법의 우수성을 입증했다. 기존 치료법은 피부를 절개하고 얼굴의 신경과 근육을 박리하여 수술한다. 수술 후 흉터가 남고 박리에 의해 근육이 오그라들어 환자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합병증 위험이 높았다. 환자들의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남 교수팀은 ‘구부러진 수술기구(Angulated screwdriver)’를 통해 구강 내로 접근해 피부 절개 없이 하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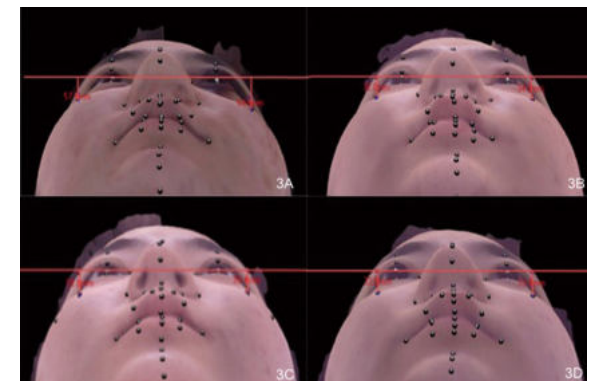
골 과두하 골절을 치료하는 수술법’을 제시하고, ‘기존 피부 절개 수술법’과 비교 연구했다. 총 24명의 하악골 과두하 골절 환자에서 14명의 환자는 구부러진 수술기구를 이용한 구강 내 접근법으로 치료하고, 10명의 환자는 기존의 피부 절개법으로 치료했다. 그리고 수술 후 1주, 6주, 3개월, 6개월 시점에서 환자들의 입 벌림 회복 정도를 측정하여 비교했다. 그 결과, 구부러진 구강 내 접근법으로 수술한 환자들이 피부 절개법을 사용한 환자들보다 수술 후 6주와 3개월 시점에서



구부러진 수술기구(Angulated screwdriver)를 통해 구강 내로 접근해 피부 절개 없이 하악골 과두하 골절을 치료하는 수술법(Copyright by Wolters Kluwer Health)



하악골 과두하 골절 치료에서 구강 내 접근법으로 수술한 환자들이 피부 절개법을 사용한 환자들보다 수술 후 6주와 3개월 시점에서 입 벌림 회복 정도가 빠르다



광대상악골절을 최소 절개법으로 치료 후 3D 카메라를 통해 수술 전, 수술 후 1주, 1달, 3달째(3A→3D순) 광대 높이를 스캔·비교 분석해 안정성 입증

입 벌림 회복 정도가 빠름을 입증했다. 연구 결과는 세계적인 학술지 ‘BMC Surgery’에 게재됐으며, 환자들의 편의성과 만족도를 끌어올려 하악골 골절 치료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광대상악골절에서 최소 절개법의 안전성 입증

또, 남승민 교수팀은 광대상악골절 환자를 입안 점막만 최소 절개하여 흡수성 고정판으로 치료하는 수술법의 안정성을 입증했다. 기존 치료법은 입안과 눈 밑, 눈썹 부위를 절개하고 금속 고정판으로 뼈를 고정한다. 이 수술법은 얼굴에 흉터가 남고, 금속판에 의한 불편함뿐만 아니라 금속판 제거를 위한 2차 수술도 필요했다. 반면에 입안 점막만을 최소 절개하고 최근에 개발된 흡수성 고정판(OSTEOTRANS MX®)을 이용해 뼈를 고정하는 수술법은 흉터는 남지 않지만, 그동안 수술 결과의 안정성이 입증되지 않아 널리 사용되지 못했다. 남승민 교수팀은 입안 점막을 최소 절개한 뒤 흡수성 고정판을 이용하여 광대상악골절을 치료하고, 이 수술법의 안정성을 3D 카메라 분석법을 통해 입증했다. 연구팀은 34명의 광대상악골절 환자를 대상으로 수술 전, 수술 후 1주, 1달, 3달째에 3D 카메라 Morphiu®를 이용해 광대의 높이를 각각 스캔하고 비교했다.

그 결과, 구강 내만 절개하고 흡수성 고정판을 이용한 수술법이 광대의 높이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연구 결과는 세계적인 학술지 ‘Journal of Otolaryngology-Head & Neck Surgery’ 최신 호에 게재했다. 환자들의 불편은 줄이고 치료 결과는 안정적으로 유지해 광대상악골절 치료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연구로 평가받는다.

순천향대 부천병원 성형외과 남승민 교수는 “하악골 과두하 골절과 광대상악골절 등 얼굴 뼈 골절 치료에서 환자들의 편의성과 만족도, 수술 안정성은 높이고, 합병증 위험은 감소시킬 수 있는 새 수술법을 제시하고자 연구를 거듭했다. 이번 연구 결과들이 얼굴 뼈 골절 치료의 패러다임을 바꿔 환자들의 불편은 줄고 만족도는 크게 올라갈 것”이라고 밝혔다. 



남승민 교수 순천향대 부천병원 성형외과

‘탈모’ 치료 1년 늦으면 모발손실 ‘1000 가닥’



풍성한 머리숱은 아마 탈모인들에게는 소원 0순위일 것이다. 탈모가 심하면 연애, 면접, 대인관계 등 첫인상이 중요한 자리에서 자신감을 잃고 심리적 고통을 겪을 수 있다. 젊은 탈모환자도 많이 늘고 있고, 과거엔 중년 남성의 고민거리로 여겨졌던 탈모는 이제 성인 모두의 관심사가 되었다. 일반인의 경우 약 10만 개 정도의 머리카락이 존재하며, 하루에 약 50~100개의 머리카락이 빠지는 것은 정상적인 현상이다. 자고 일어나거나 머리를 감을 때 빠지는 머리카락 수가 100개가 넘으면 탈모 전문의와 상담해보는 것이 좋다.

탈모 치료의 적기

본인이 탈모를 인지한 시점이다. 머리를 감으면서 머리카락이 날리는 느낌 또는 강도가 떨어지거나 무게가 줄어든 느낌을 받았을 때가 가장 적절한 치료 시기다. 탈모치료 관련 연구에 따르면 탈모약을 1년 늦게 복용하면 1천 가닥 이상의 손실이 발생한다. 모발이식의 경우 보통 2천~3천 가닥을 이식하는 것과 비교하면 조기에 약물 치료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유형별 치료법 달라

탈모의 유형은 다양하며, 어떤 탈모냐에 따라 치료법도 달라진다. 남성·여성 탈모에는 저출력레이저, 미녹시딜 등의 바르는 약, 피나스테라이드·두타스테라이드 등의 5알파-환원효소 억제약품, 모발이식술 등이 있다. 원형탈모에는 엑시머레이저, 저출력레이저, 국소·전신스테로이드제제, 면역요법 등이 있다. 휴지기 탈모는 원인이 제거되면 모발이 회복되기 때문에 원인을 우선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빠른 치료효과를 위해 저출력레이저, 미녹시딜, 전신스테로이드제제 등의 치료법이 사용된다.

엑시머레이저, 원형탈모에 효과

엑시머레이저는 스테로이드 주사에 거부감이 있는 경우, 어린이나 주사를 맞기에 크기가 큰 병변인 경우에 효과적이다. 탈모가 발생한 부위에 308nm의 자외선 파장대의 빛을 조사하는 방식으로 치

료한다. 이때 체내에 비타민D가 증가하면서 원형탈모의 원인인 T세포의 생성을 억제해 탈모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는 원리다. 이를 통해 모발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저출력레이저, 다양한 탈모에 효과

저출력레이저는 원형탈모뿐 아니라 남성·여성 탈모 등 다양한 탈모질환에 효과적인 치료법이다. 단파장의 빛을 증폭시켜 국소 부위에 조사하는 방식으로 치료한다. 두피조직에 영양과 산소 공급을 증가시킴으로써 노폐물 배출을 가속화시킨다. 이는 치료기간을 크게 단축시키는 데에 도움을 준다. 이외에도 두피조직에 열 손상을 주지 않고, 두피 모세혈관의 혈류량을 늘려 남성 탈모에 도움을 준다.

경구제제, 부작용 적고 안전

남성 탈모치료 경구제제인 피나스테라이드와 두타스테라이드의 경우 발기부전, 생식력 저하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10년 장기복용 환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에서 부작용이 나타나는 경우는 5% 이하이며, 복용을 중단하면 부작용이 사라진다고 밝혀졌다. 미녹시딜은 피부가 예민한 경우 두피에 염증이 일어나 붉어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지만 최근 염증을 일으키는 알레르기 반응이 적은 치료약이 나와 좋은 대안이 되고 있다.



엑시머레이저 치료모습

탈모人 10명 중 4명은 여성, 남성과 다른 ‘여성 탈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18년에 탈모로 병원을 찾은 환자 10명 중 4명이 여성이다. 여성 3명 중 1명은 평생 1번 이상의 탈모를 경험한다. 특히 갱년기 이후 여성은 3명 중 많게는 2명에서 모발 굵기의 감소나 탈모반을 겪는다. 그러나 ‘탈모=대머리=남성’이라는 사회적인 고정관념 때문에 남성보다 여성에서 탈모가 심한 스트레스와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지기 쉽다.

이마 벗겨지거나 대머리는 없어

여성도 남성호르몬을 다량 갖고 있다. 남성호르몬이 모낭(털주머니)에 존재하는 특수한 5α-환원 효소와 상호작용하면 변형 남성호르몬(DHT)이 생긴다. 이러한 DHT가 모낭세포를 공격해 탈모를 일으키는 것이다. 여성 탈모는 남성 탈모와 달리 이마 위 헤어라인(모발선)이 유지되고, 헤어라인 위부터 정수리까지 머리 중심부 모발이 가늘어지고 숱이 줄어드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탈모가 진행되면서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듬성듬성한 모양을 보이지만 남성처럼 이마가 벗겨지거나 대머리가 되는 경우는 없다.

고지방 식이, 잦은 염색·파마 등 원인

유전적인 요인뿐 아니라 식생활, 환경의 변화가 여성 탈모에 영향을 미친다. ▲고지방질 식단은 탈모를 진행시키고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세정력이 강한 샴푸, 잦은 염색·파마도 머리카락의 손상과 두피 자극을 촉진해 탈모를 유발할 수 있다. ▲미세먼지와 같은 환경오염은 여성 탈모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스트레스, 과도한 음주, 흡연도 두피 건강에 해롭다. 출산 후에는 호르몬의 급격한 변화로 휴지기 탈모가 생길 수 있다. 보통 산후 3개월경에 머리카락이 한꺼번에 빠진다. 이 시기가 지나면 성장기로 다시 돌아가면서 이전 상태로 회복된다.

회복 어려워… 증상 보이면 즉시 치료

여성 탈모는 남성 탈모보다 치료가 어려운 편이다. 초기에 생활습관 개선과 약물치료를 통해 관리하지 않으면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증상이 있을 때 즉시 병원에 방문해 탈모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 탈모 초기에 증상에 맞는 탈모치료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바르는 약, 저출력 레이저 효과

여성 탈모는 바르는 약인 미녹시딜이 효과적이다. 폼 타입의 미녹시딜은 기존의 액체나 젤 타입과 달리 프로필렌 글라이콜이라는 방부제와 알코올 성분이 들어가지 않아 두피 자극이 적다. 레이저는



저출력 레이저 치료모습

바르는 미녹시딜 다음으로 효능이 의학적으로 입증된 치료법이다. 두피에 투여하는 모낭주사와 LED 등 저출력 레이저 치료를 주기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병원에서 1주 1회 3개월가량 두피에 레이저를 조사하면 효과를 볼 수 있다. 최근 가정용 레이저기가 주목을 받고 있다. 하지만 병원용 레이저기기에 비해 조사되는 광량이 충분치 않고, 의학적으로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용 전 탈모 전문의와 상담해보는 것이 좋다.

모발 영양제는 전문의 처방으로

케라민, 효모, L시스테인과 같은 모발영양제는 탈모에 도움이 되며, 이들 성분이 적절히 함유된 제품들을 시중에서도 구매할 수 있다. 특별히 비오틴이 부족하지 않다면 비오틴 영양제를 복용하는 것보다 일반 모발영양제를 복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단, 영양제 복용은 탈모 전문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경구 탈모치료제는 임신준비하는 가임기 여성의 경우 삼가는 것이 좋다. 단, 난임이나 성욕감퇴 등의 부작용도 알려진 바가 없기 때문에 출산계획이 없는 중년 이후의 여성은 먹는 약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두피관리법

▲하루 30분 이상 운동을 통해 스트레스 해소하고 ▲미지근한 물에 머리를 감고, 자연 바람으로 머리를 말리는 등 두피의 자극을 주지 않는 생활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 ▲혈액순환을 돕는 두피마사지도 효과적인 예방법이 될 수 있다. 스트레스성 여성 탈모는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면서 충분한 휴식을 취해주면 증상을 완화시키고 탈모 자체를 예방할 수 있다. ■SCH



정의현 교수 순천향대 천안병원 피부과

수면호흡장애, 중대 질병으로 인식 적극적 치료해야

의사 처방의 Level I 수면다원검사 필요



수면 중 코골이·무호흡 등 ‘수면호흡장애(Sleep Disordered Breathing:SDB) 증상’을 가진 사람은 전 세계적으로 1억 명 이상으로 알려져 있다. 국내는 수면장애 진단을 받은 환자 수가 2012년에 35만 8천명, 2016년에는 49만 4천명으로 5년간 1.38배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수면호흡장애 및 호흡 관련 질병은 집중력 저하, 고혈압, 우울증, 비만 등의 문제를 야기해 삶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으며, 심각하게는 울혈심부전증 및 제2형 당뇨병 등의 동반 질환으로 발전할 수 있기에 예방과 치료가 중요하다.

수면 중 코골이·무호흡 등 ‘수면호흡장애’는 매우 흔한 생리적 현상이지만 코골이가 있는 사람의 75%는 수면 중에 호흡이 멈추는 수면무호흡증을 동반한다. 수면무호흡증은 주변 사람이 관찰해도 알기 힘든 경우가 많다. 수면무호흡증이 하룻밤에 40회 이상 나타나는 경우에는 깊은 잠을 자지 못하고, 체내 산소 공급이 어렵게 되어, 낮 동안 피로감, 자도 잔 것 같지 않은 느낌, 아침 두통, 무기력감, 중력과 기억력 저하, 우울감 등을 유발한다. 수면 중 무호흡 환자는 낮 동안의 졸음과 인지기능 저하로 인하여 기억력과 집중력이 떨어지고, 그 결과 자동차사고나 작업장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아진다.

성인 인구의 20%가 수면 무호흡증 호소, 적극적 치료해야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8천만 명의 인구가 경미하거나 심각한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을 앓고 있으며 향후 10년간 COPD에 의한 사망률이 30%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성인 인구의 20%가 수면 무호흡증을 호소하고 있으며, 이중 13%는 경미한 수준으로, 7%는 심각한 수준으로 수면 무호흡증을 앓고 있는 상황이다. 미 국립보건통계센터는 수면호흡장애 및 호흡 관련 질환이 인구의 고령화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한국은 수면호흡장애에 대해 일반인들이 중대한 질환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 진단과 치료에 대한 접근성이 많이 떨어져 선진국에서는 수면호흡장애(SDB)를 치료해야 할 질병으로 인식하며 적극적인 치료에 나서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미국 통계에 따르면 졸음운전으로 연간 10만 건의 사고가 발생하고, 치료받지 않은 수면무호흡증이 운전사고 위험을 2배 증가시킨다고 보고되었으며 무호흡증을 앓고 있는 차량 운전자들을 치료할 경우 연간 110여 억 달러의 사고처리 비용절감과 천여 명의 인명손실을 줄인다는 통계 결과가 있다. 프랑스 역시 건강보험공단이 수면장애 환자들에게 IT장비를 부착해 원격 모니터링 관리를 하고 있다. 특히 부모들이 수면장애가 아이들의 성장발육, 공부에 대한 집중력 및 성격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인식함에 따라 수면장애에 대한 경각심이 강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양압기의 건강보험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필수 조건으로 수면인증교육을 받은 의사가 처방한 수면다원검사가 필요하다. 수면다원검사 장비는 뇌파측정이 포함된 Level I 수면다원검사 기계만 건강보험으로 인정되고 있다.”

구미병원, 경북 중서부권 지역 최초 최신 Level I 수면다원검사 기기 2대 도입 운용

코골이는 30대 10~15%, 60대는 50%가량 경험할 정도로 흔하며 최근 들어 코골이를 치료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오랫동안 코를 골면 몸속 산소가 부족해져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부정맥과 심근경색, 뇌졸중 등을 일으키는 수면무호흡증이 생길 수 있다. 현재 코골이 증상은 수술을 하거나 비수술적인 치료방법인 코에 산소를 넣고 기도를 넓혀주는 치료기인 양압호흡기(CPAP: Continuous positive airway pressure)가 가장 많이 쓰이고 코골이 환자들은 양압호흡기에 연결된 별도의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로 수면을 취하게 된다. 양압기의 경우 2018년 6월까지의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1대당 200~300만 원의 부담이 있었으나 2018년 7월부터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매우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양압기의 건강보험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필수 조건으로 수면인증교육을 받은 의사가 처방한 수면다원검사가 필요하다. 수면다원검사 장비는 뇌파측정이 포함된 Level I 수면다원검사 기계만 건강보험으로 인정되고 있다. 순천향대학교 구미병원, 경북 중서부권 지역 최초로 2019년 9월부터 최신의 Level I 수면다원검사 기기 2대를 운용하게 되어 환자의 진료편의성과 의료 수준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거라 기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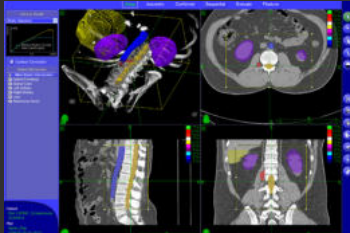


전영준 교수 순천향대 구미병원 이비인후과

암세포만 정밀 추적 집중 치료하는
최첨단 특수의료장비

CYBER
KNIFE

일반적인 칼(Knife)을 이용한 절개 수술 방식이 아닌 방사선을 조사하여 신체의 어느 부위라도 안전하게 전신의 암을 제거하는 최첨단 방사선 치료장비다. 환자의 호흡 또는 내부 장기의 움직임에 따른 종양의 위치 변화를 고려한 후, 로봇팔(Arm)이 실시간으로 위치를 추적하여 치료하기 때문에 정상 조직에 피해를 최소화 시켜 암세포만 집중적으로 치료하는 특수의료장비다.



장점

타 방사선치료장비와 비교하여 가장 정확하고 정밀한 치료가 가능하고, 시술 후 통증 및 부작용이 없으며, 로봇팔을 이용하기 때문에 종양의 위치와 형태에 상관없이 모든 방향에서 치료가 가능하며, 수술이 불가능하거나 복잡한 종양도 치료가 가능합니다. 주변 장기 손상이 우려되는 경우, 분할 치료를 시행 가능하여 부작용을 더욱 줄일 수 있습니다. 최근 출시된 다엽콜리메이터 (Multi Leaf Collimator)의 장착으로 인해 치료 시간이 더욱 단축되었습니다.

천진한 소년의 미소에서 ‘중용의 도’를 보다

모자라지 않고, 과하지 않은 ‘자상하고 부드러운’ 의사되고파



글_허강우 사진_임수혁

‘치우침이나 과부족(過不足)이 없이 뒤틀리며 알맞은 상태나 정도’, 중용(中庸)의 사전적 의미다. 필자가 만난 사람 중 중용에 가장 근접한 인물을 꼽으라면 바로 이 사람이 아닐까 싶다. 곧 예수를 바라봄에도 여전히 소년처럼 천진난만한 미소와 믿기지 않을 정도의 최강 동안을 자랑하는 노영복 늘바른정형외과 원장이 바로 그 주인공이다.

“모자라지 않습니다. 과하지도 않습니다. 正 늘 바른 진료를 하겠습니다.”

경기도 분당의 고즈넉한 동네에 자리 잡은 늘바른정형외과에 들어서면 한쪽 벽면에 이 같은 글귀가 눈길을 사로잡는다. 모자라지 않고, 과하지도 않은, 늘 바른 진료. 말이나 글로 표현하기가 쉽지 그게 어디 쉬운 일인가. 오죽하면 ‘중용의 도(道)’라고 할까. 그렇지만 노영복 원장을 처음 대하면 이게 그냥 단순한 수사는 아니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다가, 대화를 하다보면 정말 그럴 수도 있겠다 싶다가, 헤어질 때면 저 말이 결코 허사(虛辭)가 아니라는 확신이 들게 된다.

“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정말 그렇게 생각해 주신다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개원을 하면서 마음에 새긴 제 자신과의 약속이자 신념입니다. 참으로 다행스럽게 지금까지는 이 같은 결심이 크게 흔들리지도 않았고 내원하는 분들도 제 뜻을 헤아려 주시는 것 같아서 가끔씩은 꽤 뿌듯한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서도 연신 부끄러운 듯, 수줍은 듯 소년의 미소를 잃지 않는 노 원장.

부드럽고 자상한 의사로 기억되고 싶어

말 한 마디, 행동 한 가지가 부드럽고 자상하며 상대방을 배려하는 세심한 모습이 돋보이는 노 원장이기에 편하고 안전한 꽃길만을 걸어온 것 같지만 그의 이력은 의외로(?) 파란만장하다.

“출생지는 부여, 초등학교 시절부터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는 서울, 대학은 온양과 서울, 18년 간의 직장생활은 보령. 좀 복잡하죠?(웃음) 그리고 이제 분당에서 자리 잡은 지는 10월로 꼭 3년이 됩니다. 생활했던 지역이 분산되었을 뿐이지 학창시절이었든, 사회생활이 었든 크게 내세울 것 없이 평범하게 보냈던 것 같아요.”

학창시절이야 그랬다고 인정해 주더라도 개원 이전의 직장생활을 18년이나 했다는 것은 그리 평범하다고 할 수 없는 지점이다. 그 기간에 아내(진단의학 전문의)와는 주말부부였고, 개원을 하고 나서야 같은 공간에서 지내기 시작했으니 어찌 보면 아직도 ‘신혼’이라고 해야겠다. 인턴 시절에 연애를 시작했고 군의관 2년 차에 결혼해 내년이면 30년, 진주혼식(眞珠婚式)인데도 실질적으로는 신혼이어서 매일매일이 새롭겠다는 질문에 “그래서 아직도 싸워요.”라는 농담조의 대답이 예의 그 천진한 미소와 함께 되돌아온다.

아버지로부터 성품을, 어머니에게서 삶의 지표를

5남매(3남 2녀)의 막내였던 그에게 아버지는 성품을, 어머니는 인생의 방향과 삶의 지표를 남겨 주셨다. ‘무골호인’이라는 표현이 그렇게 잘 어울릴 수가 없었다는 선친의 성정이 그대로 그에게 이어졌고, 가정 경제를 책임지셨던 어머니의 생활력을 보면서 미래의 자신을 그려볼 수 있었다고 회상한다. 마주앉은 이가 어떤 사람이



됐든 금방 무장해제 수준으로 쉽게 그를 대할 수 있는 것도 아버지의 성정과 어머니의 삶이 절묘하게 어우러져 균형 잡힌 태도가 절로 우러나오기 때문이라.

학창시절엔 당구, 지금은 싱글 수준의 골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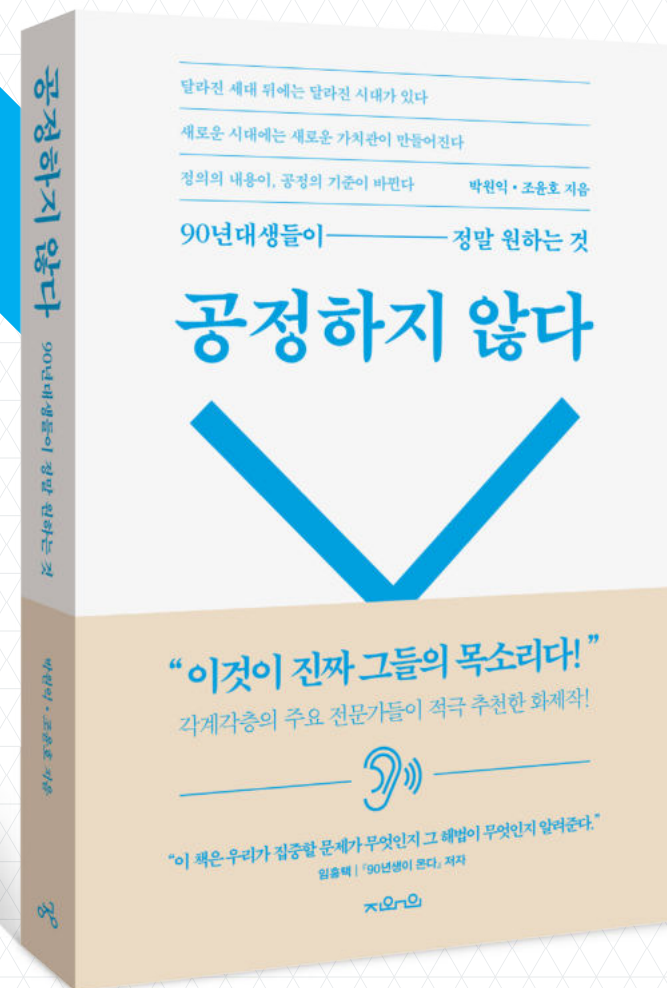
“나이가 들기 시작한다는 생각이 들면서부터 가능한 친구와 지인의 경조사는 빠지지 않으려고 해요. 여전히 바쁘게 현역으로 생활하는 친구들을 따로 만날 기회가 그리 많지 않은 것이 현대인의 삶입니다. 누구나 느끼겠지만 저 역시 그 같은 아쉬움을 조금이라도 달래기 위해서라도 빠짐없이 참석하게 되더라고요.”

병원의 특성상 입원환자가 없지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어지는 진료는 사실 여전히 격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주 5일 근무가 일반화돼 있는 직장인들에 비하면 아이러니컬하게도 열악(?)한 근무환경이다. “제가 어릴 때부터 공을 갖고 하는 운동은 잘 했어요. 대학시절엔 당구를 꽤 잘 쳤죠. 본과 3학년이 되면서 서울로 올라와서 생활하게 됐는데, 온양의 단골 당구장 사장님이 학교 앞에 당구장을 차렸어요. 개업 기념으로 3쿠션 대회를 열었는데 제가 우승할 정도였어요. 지금이야 친구와 만날 때 이외에는 기회가 잘 없지만.”

구기 종목의 소질이 어디 가질 않는 모양이다. 지금의 유일한 건강 유지책은 골프. 이어지는 진료로 인해 ‘주말 골퍼’의 한계가 분명함에도 싱글 수준을 가볍게(스스로는 손사래를 치지만) 넘어서는 실력을 발휘하는 것을 보면 말이다. 넘치지 않고, 모자라지 않는, 그래서 바르고 옳은 길을 걷겠다는 노 원장의 신념과 의지가 부담스럽지 않은 것은 소년의 미소와 섬세한 배려에서 배어나오는 그의 진심이 가슴으로 다가오기 때문이다. 

UNFAIR 「공정하지 않다」

그들을 모르면 세상을 모르는 것이다



글_백승주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겠다.” 이 얘기가야말로 이상적인 사회를 만드는데 완벽한 진리임이 틀림없다. 공정은 어느 세대에도 마땅히 지켜야 할 가치이지만, 과거와 오늘날 세대가 말하는 공정의 기준에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요즘 공정성 문제로 온 나라가 사회적으로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최근 1990년대생의 특징을 다룬 「공정하지 않다」 책이 주목받고 있다.

달라진 세대 뒤에는 달라진 시대가 있다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가치관이 만들어진다

정의의 내용이, 공정의 기준이 바뀐다

BOOK

모든 세대는 각자 ‘자기 시간’과 ‘자기 문제’를 갖고 있다. 중요한 것은 세대마다 자신들의 청년기, 특히 20대에 어떤 경험을 했느냐에 따라 평생의 행동방식이 결정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한 시대의 과제는 그 시대 청년들의 불만에 달려 있고, 한 사회의 미래는 그 사회 청년들의 가치관에 의해 결정된다.

‘도대체 종잡을 수 없다.’는 이야기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는 한국의 20대 90년대생들. 기성세대들은 이들을 보고, 개인적인지 집단적인지, 부정적인지 열정적인지, 보수적인지 진보적인지 판단하지 못해 갈팡질팡한다. Fairness(공정), Achievement(성취), Individualism(개인주의), Rage(분노) 4가지로 대표되는 이들의 사회 인식을 과거의 프레임으로는 이해할 수 없다.

기성세대의 관점에서 벗어나 변화의 관점에서 이들을 보자. 이기주의, 혐오주의, 경쟁주의로 오해되는 한국의 90년대생들. 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팩트주의, 중립주의, 평등주의를 바탕으로 이들이 원하는 ‘새로운 공정함의 기준’을 알아본다. 무엇보다 사회, 정치, 문화, 경제 등 모든 분야를 움직이고 있는 오늘날의 불평등 구조와 그 구조의 당사자들인 청년세대들을 기존의 세대 갈등론이 아니라 공존의 관점에서 바라본다. 솔한 오해와 편견을 넘어 젊은 두 사회학도가 촘촘하게 그려낸 90년대생들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풍경. 이제 진짜 그들의 목소리가 들릴 것이다.

6가지 공정함과 혼돈의 세상을 살아가는 이들을 위한 6가지 삶의 무기

‘업적주의’라는 가치관을 갖고 있는 오늘의 90년대생들이 가장 민감하게 느끼는 것은 ‘노력과 상관없이 주어지는 혜택’이다. 역사적으로 가장 ‘긴 시간’을 사회 진출에 쏟아왔고, 그리하여 20대 전체가 ‘준비기’로 존재하는 이들. ‘무임승차 반대’, ‘아버지가 누구인지 묻지 마라’, ‘돈은 네 실력이 아니다’ 등 90년대생들의 대표적인 캐치프레이즈들은 이들의 여론, 행동방식, 소비방식, 대인관계에 모두 영향을 미친다.

미국 정치학자 마이클 샌델은 “어떤 사회가 정의로운지 알려면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어떻게 배분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하며 “어려운 문제는 누가 무슨 이유로 그러한 자격을 갖는지 따져보는 것”이라고 했다. 90년대생들을 이해할 때 특히 주목할 점은 이 시대의 청년들이 말하는 ‘자격’의 기준이 달라졌다는 것이다. 똑같이 정의로운 사회를 말해도 80년대 청년 세대가 추구했던 ‘정의’로운 사회와 오늘날 90년대생들이 지향하는 ‘정의’로운 사회는 확연히 다르다. 똑같이 ‘공정’을 요구해도 과거 청년 세대의 공정함의 기준과 오늘날 청년세대의 공정함의 기준은 다르다. 이 책이 “공정하지 않다”를 제목으로 삼은 것도 이 때문이다. 오늘날 ‘공정’이라는 가치에 대한 정의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알아보는 게 바로 이 시대의 문제를 아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 책은 90년대생들이 말하는 공정함의 내용을 6가지로 밝힌다. 나아가 ‘공정세대’인 90년대생들에게 이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갈등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불확실하며 불평등한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6가지 삶의 태도도 제안한다.

이들의 마음을 알아야 미래를 잡을 수 있다

90년대생들의 특징은 이들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움직이며, 같은 취향의 사람들끼리 뭉쳐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들 다수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떻게 행동하는지 쉽게 예측이 안 된다는 데 있다. 이들은 과거 세대와 달리 ‘소속감과 공동체’로 움직이지 않는다. 특정한 단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아도, 개인의 차원에서 사람들과 함께 하는 문화를 쉽게 만들어낸다. 무엇보다 청년 세대는 온라인 안에서 폐쇄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 그 움직임이 밖으로 나오면 매우 폭발적이다.

이 세대들은 일단 지지하기로 했다면 두 손 두 발 다 걷고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폭발력이 높은 20대들의 움직임에 사회 각층이 모두 주목하는 시대가 되었다. 이들의 지지를 받는 이들이 앞으로의 판도를 움직일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까. 이들의 욕망이 우리 사회 전체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어떤 에너지가 될 수 있을까. 이 책은 바로 이에 대한 해답을 모색하고 있다. ■정리

NEW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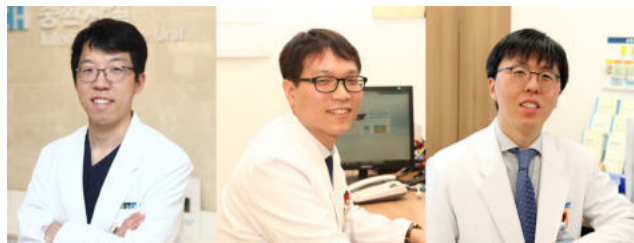


서울병원



변형권 교수, 대한갑상선학회 우수연제상 소아갑상선암 드물지만 진행 빨라 초기치료 필요

변형권 순천향대학교 부속 서울병원 이비인후과 교수가 8월 30일부터 31일까지 세종대학교 광개토관 지하2층 컨벤션홀에서 열린 대한갑상선학회 2019년 추계학술대회에서 우수연제상을 받았다. 연구논문은 ‘소아갑상선암의 임상 양상 및 치료 결과 분석’(Clinical Analysis of Pediatric Thyroid Cancer : A Single Medical Institution Experience of 18 Years)으로 국내 소아갑상선암 환자의 특징과 치료 결과를 정리하고 있다. 18년 동안 갑상선암을 진단받고 수술을 받은 20세 미만의 소아갑상선암 환자 83명을 분석한 결과 성인과 마찬가지로 소아에서도 갑상선 유두상 암종이 74명(89%)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여포상 암종이 9명(11%)으로 많았다.



강민창, 박세윤, 김형래 교수 생애 첫 연구과제 선정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강민창 외과교수, 박세윤 감염내과교수, 김형래 신장내과 교수가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연구재단이 지원하는 2019년도 하반기 ‘생애 첫 연구사업’에 선정됐다. 연구주제는 강민창 교수의 ‘안정 동위원소를 이용한 중환자실 입실 환자의 단백질 균형에 영향을 미치는 임상적 인자에 대한 연구’와 박세윤 교수의 ‘국내 감염병 전문가 의사 현황과 지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김형래 교수의 ‘당뇨병성 신증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새로운 microRNA 발굴 및 기전 탐색’이다. ‘생애 첫 연구사업’은 연구역량을 갖춘 신진연구자(만 39세 이하의 전임교원)에게 연구기회를 제공하고, 초기 연구정착을 돕는 정부사업이다. 선정 교수들은 최대 3년간 연 3천만 원 이내의 연구비를 지원받는다.

수혈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 20억

노재휘 교수팀 9년간 167,439건 수술 분석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정형외과 노재휘 교수팀(서유성, 이정재, 노재휘, 원성훈, 양현중)이 고관절(엉덩이) 인공관절 수술을 받은 환자 10명 중 8명이 수혈하고 사회적 비용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밝혀냈다. 노재휘 교수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자료를 이용해 2007년부터 2015년까지 고관절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은 167,439건을 분석했다. 양극성 반치환술, 인공고관절 전치환술, 인공고관절 재치환술 등 3그룹으로 나누어 각각 수혈률과 수혈량을 조사한 노재휘 교수팀은 9년 동안 인공관절치환술 수술 시 전체 수술에서 수혈을 시행한 평균 수혈률이 82.7%에 이른다는 것을 발견했다. 노 교수는 “현재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혈액 보유량은 적정 보유량(7일분)에 못 미치고 있는데다 헌혈을 주로 하는 10~20대 인구가 줄면서 혈액 부족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고관절 인공 관절 치환술이 필요한 환자 수가 꾸준히 증가할 것”이라며 “수혈로 인해 매년 20억 이상의 비용이 발생하는 것을 사회적 문제로 심각하게 인식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 논문은 SCI급 학술지 Transfusion(2019년 7월호)에 실렸다.

용산구치매안심센터 10주년 기념 및 새 단장식 순천향대서울병원 모범적 운영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용산구로부터 수탁 운영 중인 용산구치매안심센터가 8월 30일 새 단장과 함께 개소 1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용산구종합행정타운 지하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새 단장 식에는 성장현 용산구청장, 김정재 용산구의회 의장을 비롯한 용산구의회 의원, 안무영 센터장, 지역주민 등이 참석해 축하와 발전을 기원했다. 기념식에서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용산구치매안심센터는 지난 10년 동안 서울시가 선정한 우수센터에 6번이나 이름을 올린 최우수 센터”라며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치매가 걸리지 않게 건강하게 사는 것이 중요하고 걸리더라도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무영 센터장은 “지난 10년 동안 지역사회에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셔서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분들에게 치료혜택을 드리고 치매예방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비만수술 후 심혈관계질환 발생 위험 23% 감소 국내 위험발생 예측모델 아시아인 대상 첫 연구

르와이위외과술과 위소매절제술 등 비만수술 후 심혈관계 질환의 발생 위험률을 23% 낮출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번 연구결과는 아시아 비만 환자를 위한 심장학회에서 마련한 심혈관계질환 위험예측모델(Korean Risk Prediction Model)에 적용해 얻은 첫 사례다.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김상현 고도비만수술센터장은 2009년 10월부터 2017년 7월까지 40세에서 70세 사이의 위소매절제술과 위외과술을 받은 1,034명 중 예측모델에 적용할 수 있는 67명의 환자를 분석했다. 김상현 고도비만수술센터장은 “그동안 미국의 예측모델을 적용해 심혈관계 질환의 발생 위험 확률을 평가하다 보니 아시아인의 실정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며 “이번 연구가 비만환자의 심혈관 질환 위험 발생률을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초석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NEWS



부천병원



‘제13회 미래 의대생을 위한 1일 병원 체험행사’ 성료

부천병원이 8월 13~14일 양일간 개최한 ‘제13회 미래 의대생을 위한 1일 병원 체험행사’가 학생과 학부모 1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끝났다. 1일 병원 체험행사는 순천향대학교와 순천향대 부천병원이 의과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중·고등학생에게 실제 의료 현장을 체험할 기회를 제공해 진로 결정에 도움을 주는 사회공헌활동이다. 올해는 에세이 평가를 통해 높은 경쟁률을 뚫은 학생들이 김해, 여수, 부산, 제주 등 전국 12개 사·도에서 참가해 뜨거운 인기를 실감케 했다. 제주에서 참여한 조천중학교 2학년 최민규 학생은 “체험행사가 의사와 병원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 수술 잘하는 외과 의사가 돼서 해외 의료봉사를 떠나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싶다.”고 참가 소감을 밝혔다.

한캄봉사회, 캄보디아에서 사랑의 인술 펼쳐

순천향대학교 중앙의료원 한캄봉사회(회장 신용진, 순천향대 부천병원장)가 8월 14~19일까지 5박 6일 간의 일정으로 캄보디아 의료봉사를 시행해 순천향의 ‘인간사랑’ 정신을 실천했다. 한캄봉사회는 순천향대 부천병원 의료진이 중심이 되어 2002년에 발족한 봉사단체다. 이번 18차 한캄봉사회는 신용진 한캄봉사회장(외과 교수), 김지선 유방외과 교수, 최지호·박기남·김재욱 이비인후과 교수, 조성진 신경외과 교수를 비롯하여 간호사, 약사, 행정지원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봉사회는 캄보디아 프놈펜 시하누크 병원(Sihanouk Hospital Center of Hope)에서 현지 의료진에게 최신 의료 술기를 전수하고, 프놈펜에서 4시간 거리에 떨어진 칸 초 초등학교(Kanh Chor primary school)로 이동해 현지 주민 4,454명을 진료하고, 32건의 합동 수술을 진행했다. 이날 봉사에는 캄보디아 훈 마넷 육군총사령관이 이끄는 봉사단체 ‘TYDA’ 회원 300명이 함께 했다.



'내시경·초음파 라이브 심포지엄 2019' 성료

부천병원 소화기병센터·소화기병연구소가 9월 1일 개최한 ‘내시경·초음파 라이브 심포지엄 2019’이 국내 소화기 의료진 및 관계자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공리에 끝났다. 심포지엄에는 ▲상복부 초음파 표준 검사법과 간 섬유화의 비침습적 진단(김상균 교수) ▲초음파 내시경 유도하 세침흡인 조직검사: 췌장암 바로 진단하기(문종호, 이윤나 교수) 등 다채로운 강연과 내시경·초음파 시술 생중계가 진행되어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신용진 순천향대 부천병원장은 “지역 유일의 상급종합병원이자, 경기 서부권을 대표하는 의료기관으로서 매년 심포지엄을 열고 우리 병원이 축적한 다양한 임상 경험과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역 의료계의 발전을 견인하고, 많은 환자가 제때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관상동맥우회술 적정성 평가 1등급

부천병원이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관상동맥우회술 적정성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1등급을 받았다. 이번 평가는 2017년 7월부터 2018년 6월까지 허혈성 심질환으로 입원한 환자에게 관상동맥우회술을 실시한 전국 84개 병원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평가지표는 ▲관상동맥우회술 건수 ▲수술 시 내흉동맥 사용 비율 ▲퇴원 시 아스피린 처방률 ▲수술 후 합병증으로 인한 재수술 비율 ▲사망률 등이다. 부천병원 심장혈관센터는 ‘24시간 가동 심장혈관 전문 진료팀’이 신속한 진단과 치료를 하고 있다. 또 심장 초음파실, 동맥혈관 검사실, 운동부하/24시간 검사실 등을 한 공간에 모은 ‘심장기능 검사실’을 통해 환자들의 이동 동선을 줄이는 등 진료 편의를 극대화해 좋은 평을 받고 있다.



NEWS



천안병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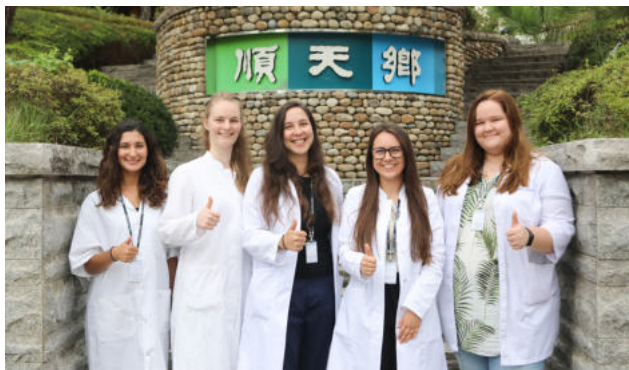


소아청소년과 김승수 교수, 대한수면연구학회 우수논문상 수상

천안병원 소아청소년과 김승수 교수가 최근 서울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2019년도 대한수면연구학회 학술대회에서 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 김 교수의 수상 논문은 ‘비만 폐쇄수면무호흡 환자에서 기계학습을 통한 적정 양압 예측모형(Predictive Model of Optimal Continuous Positive Airway Pressure for Obstructive Sleep Apnea Patients with Obesity by Using Machine Learning)’으로 대한수면연구학회 학술지 Journal of sleep medicine 최근호에 실렸다. 김 교수는 논문에서 비만 폐쇄수면무호흡증의 양압기 사전적응치료에 필요한 압력값을 보다 정확히 예측할 새로운 방법을 개발하고, 그 정확도를 분석해 보고했다. 김 교수가 제시한 새로운 예측방법은 기계학습(Machine Learning)을 이용한 것으로, 기존 활용되던 예측방법들보다 훨씬 정확도가 높았다. 대표적인 폐쇄수면무호흡 치료법인 양압기 치료는 적응 여부가 성패를 좌우한다. 따라서 양압기 적정 검사 전 1~3개월 사전적응치료가 필요한데, 이때 적정 압력값 산정이 매우 중요하다.

입원환자 대상 회진알림 SMS 서비스 ‘호평’

천안병원이 시행 중인 ‘회진알림 SMS 서비스’가 환자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회진알림 SMS 서비스’는 입원환자에게 회진시간을 휴대폰 SMS(단문 메시지)로 예고하는 서비스다. 회진실시 10~30분 전 환자에게 담당 교수가 직접 전송한다. 그동안 병동 게시판을 이용해 회진시간을 안내해오던 방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환자중심 서비스로 담당 교수가 응급환자 진료 및 수술 등 긴급한 일정으로 회진이 어려운 경우까지 사전에 공지하고 있다. 병원은 ‘회진알림 SMS 서비스’를 지난 5월부터 시작했으며, 현재 중환자실, 신생아 중환자실, 응급병동을 제외한 모든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다.



외국의대생 대상 4주간 임상실습 실시

천안병원은 외국의대생 5명을 대상으로 임상실습을 실시했다. 독일, 모로코, 에스 토니아, 헝가리 등 4개 나라의 의대생 5명은 세계의대생협회연합(IFMSA)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선발된 학생들이다. 이들은 9월 2일부터 27일까지 4주간 순천향대 천안병원의 다양한 진료과에서 진료 · 수술 · 회진 · 컨퍼런스 참관 등 임상실습을 진행했다. 학생들은 임상실습 기간 중 천안 독립기념관, 아산 현충사, 서울 경복궁 · 인사동 등지에서 문화체험 기회도 가졌다. 세계의대생협회연합(IFMSA)은 100여 개 국가의 의대생협회가 가입된 공식 NGO다. 의학교육을 비롯해 성, 건강, 인권, 평화 등의 의제를 다루며, WHO, UN, 국경없는 의사회 등 많은 국제기구와 협력사업도 진행한다.

자살예방 공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천안병원이 9월 10일 오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19년 자살예방의 날’ 기념식에서 지역사회 자살예방에 기여한 공로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병원은 ‘생명사랑위기관리센터’의 충실한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 자살예방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생명사랑위기관리센터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자살예방 및 응급실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의 총괄권 전담기관이다. 정신건강의학과 심세훈 교수와 전공의 4명, 사회복지사 3명 등으로 구성돼 있는 센터가 사후관리하는 자살시도자는 연평균 400여 명에 달한다. 센터는 또 매년 지역 보건 의료기관들과 함께 심포지엄, 음악치료콘서트 등 다양한 자살예방사업들을 펼치는 한편, 대전 · 세종 · 충남복지지역 소방관들의 심리적 안정과 정신건강관리를 돕는 소방심리지원단도 운영하고 있다.



NEWS



구미병원

환자안전·감염관리 주간행사 실시

구미병원은 환자안전과 감염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지속적인 환자안전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지난 7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환자안전 및 감염관리 주간행사를 개최했다. 항설교육관과 본관로비, 각 병동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능력 향상을 위한 심폐소생술 경진대회와 격리보호구 레벨 D 착탈의 경진대회가 개최되었다. 또한 심폐소생술 및 손 위생 체험 등 환자와 내원객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진행되었으며 올바른 손 위생 체험을 통해 감염관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자 기초가 되는 손 위생의 올바른 방법을 교육하고, 손 위생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뷰 박스(View Box)를 통해 평소에 제대로 손 위생을 실천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교정하는 시간이 가졌다. 뿐만 아니라 건의사항 및 고충사항 등 현장의 소리를 경청하고 개선하는 시간이 되었으며, 환자안전에 대한 정보 공유와 함께 기념품도 받는 일석이조의 이벤트가 되었다.



주차장 증축 준공식 거행

구미병원은 지난 8월 18일, 이문수 관리원장을 비롯한 주요 보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주차장 증축 준공식을 거행하였다. 이번에 증축된 주차장은 지상4층 전체면적 3,698㎡(1,120평)로 현재보다 134면 추가되었으며, CCTV 설치 및 소화설비 설치 등 최신식 시설을 도입해 내원객들의 주차 편의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최근 내원객의 증가 및 주차장 부족으로 병원 이용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는데 숙원사업이었던 주차장 증축공사가 완공되어 내원객들이 차량정체 없이 신속하게 병원 이용 및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교직원자녀 병원체험 행사

구미병원은 지난 7월 24일 본원 항설교육관에서 교직원 자녀 초·중·고등학생 30여 명을 대상으로 개원 40주년 기념 ‘교직원 자녀 병원체험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부모님의 직장에 대한 이해와 자부심을 상기시키고 체험을 통해 가족 간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진행되었다. 행사순서는 ▲병원소개 ▲주요 시설 라운딩 ▲감염병 예방교육 및 올바른 손 위생 체험 ▲기념촬영 및 기념품 수여식 ▲부모와 함께 점심식사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재활치료실, 인공신장실, 진단검사의학과, 응급실, 간호간병통합병동 등을 방문하여 병원의 의료현장을 직접 체험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지는 등 부모님의 직업에 대해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수면 장애!? 지금 상담하세요!!
(코골이, 무호흡 등)

지역유일!! 수면다원 검사 건강보험적용 병원

건강보험급여 요건 : “인중 전문의와 검사장비를 갖춘 병원”



- 수면다원검사란?
코골이와 무호흡, 호흡불안 정도를 검사하여 객관적인 결과와 함께 치료방법을 결정하는 검사입니다.

- 문의 이비인후과 ☎ 054-468-9260

지역 유일 수면다원검사, 양압기 치료 건강보험 적용 병원

구미병원은 지난 8월부터 지역 최초로 수면다원검사 Level I 장비를 도입하여 2개의 수면검사실을 운영 중에 있다. 수면다원검사는 코골이와 무호흡, 호흡불안 정도를 검사하여 수면장애 원인을 진단하고 객관적인 결과와 함께 치료방향을 결정하는 검사이며, 2018년 7월부터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가능한 상태이다.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수면인증교육을 받은 전문의와 level I 장비가 필수이며, 양압기 치료시 Level I 검사 결과치가 있는 경우에만 건강보험 급여로 양압기 처방이 가능하다. 그동안 코골이, 무호흡 등 수면장애로 고통받은 많은 환자들이 지역에서 건강보험 급여 기준에 적합한 병원이 없어 많은 비용을 부담하는 등 진료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그러나 구미병원은 경북 중서부권 지역에서 유일하게 해당 장비를 도입함으로써 비용부담 해탈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NEWS



의료원 / 순천향대



순천향대중앙의료원·KOICA, 양두영병원 이비인후과 역량강화사업 박차 제1회 순천향-양두영-한캄봉사회 합동 이비인후과 콘퍼런스 성료

순천향대학교 중앙의료원(원장 황경호)은 지난 8월 15일,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 소카호텔 레잉샵 연회장에서 제1회 순천향-양두영-한캄봉사회 이비인후과 콘퍼런스를 성공적으로 마쳤다.한국국제협력단(KOICA)의캄보디아양두영 병원 이비인후과 역량강화사업(2018~2022,90억)의 일환으로 열린 콘퍼런스에는 한-캄봉사회 회장을 맡고 있는 신용진 순천향대부천병원장과 Mam Bun Heng 캄보디아 보건부장관, 오낙영 캄보디아 대사등 귀빈과 이비인후과의사-간호사를 포함한 의료진, 학생 등 150여 명이 참석해 열린 논의가 이뤄졌다. 순천향대학교 중앙의료원은 향후 3년간 매년 콘퍼런스를 개최하는 한편 현지 의료진을 한국으로 초청해 병원 운영 컨설팅과 의학 연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순천향대중앙의료원은 2002년 한-캄봉사회를 발족해 17년째 캄보디아의 소외계층을 찾아 의료봉사를 실천하고 캄보디아 의료진과 학술교류를 진행해오고 있다.



순천향대-중국 안후이중의약대 '교류10주년' 우정

순천향대(총장 서교일)가 교류 10주년을 맞은 중국 안후이중의약대학교와 확대 교류 방안 논의 등 우정을 과시했다. 2일 순천향대에 따르면 교내에 안후이중의약대학교와 교류 10주년을 상징하는 기념식수에 이어 유학생 간담회 등을 열고 2단계 도약을 위한 양교의 발전을 다짐했다. 우의를 다지기 위한 이번 행사에는 중국 안후이중의약대 출신 유학생 40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서교일 총장과 서창수 산학협력 부총장을 비롯해 안후이중의약대 왕 시엔진(WANG XIANJUN) 서기와 우청장(WU CHENGZHANG) 중국 안후이중의약대 간호대학 서기 등이 참석했다. 양 대학은 2009년 컴퓨터 전공 2+2학위취득프로그램을 시작으로 연평균 23명씩의 편입생 중심으로 활발한 교류를 펼쳐왔다.



순천향대, 청소년 과학캠프 성료

순천향대학교(총장 서교일)는 12일~13일 2일간 교내에서 23회 청소년 과학캠프를 진행했다. 이번 캠프는 전국 46개 고등학생 193명이 참석한 가운데 ▲환상적인 세포의 세계 등을 9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참가한 학생은 AB 두 트랙으로 나뉘어 각각 5개 프로그램에 참여해 체험하는 방식으로 실습을 진행했다. 순천향대 화학과와 생명시스템학과 등 8개 학과 교수 10명이 직접 학생 멘토로 나섰다. 학과별 석박사 과정생 40여 명이 실험조교로 참여했고, 재학생으로 구성된 서포터즈 50명이 학생의 실험과 체험을 도왔다.



순천향대, 당뇨병과 합병증 맞춤형 치료연구 진행

순천향대는 ‘순천향의생명연구원’ 류성호 교수 연구팀이 130억 원 규모의 당뇨병과 합병증의 조기진단및 맞춤형 치료를 위한 국가연구과제를 수행한다. 류교수팀이 수행하는 과제는 과기부가 지원하는 ‘오믹스기반 정밀의료기술개발’ 연구분야 가운데 ‘엑소좀 다중 오믹스기반 당뇨합병증 정밀진단 의료기술개발’에 관한 연구과제로 올해부터 6년간 진행된다. 연구팀은 유전자의 돌연변이나 발현 여부를 한꺼번에 분석이 가능한 ‘오믹스’ 기술을 적용해 당뇨병과 합병증을 정밀하게 진단할 수 있는 진단키트를 발굴하고 이와 관련한 기술을 기업에 이전시켜 상용화할 계획이다.



순천향대, 박사 28명 등 601명 학위수여

순천향대학교(총장 서교일)는 22일 2019년 8월 학위수여식을 개최해 학사 414명과 석사159명, 박사 28명에게 학위를 수여했다. 서교일 총장은 수여식에서 “졸업을 맞이한 자랑스런 순천향 가족들에게 축하와 응원의 마음을 전한다.”며 “그간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 학업에 열중하며 뜨거운 여름 햇살처럼 보냈던 여러분의 열정과 헌신이 오늘 이 자리에서 영광스런 학위수여를 가능하게 만들었다.”고 격려했다.

NEWS



순천향의대 동창회



순인회와 부천순동회 단합 골프대회

순천향의대 동창회는 6월 16일 경기도 시흥의 솔트베이CC에서 순인회와 부천순동회 동문들 골프단합대회를 가졌다. 순인회에서는 의대동창회 발전기금으로 1천만 원을 기부했다.



동문화합대회 준비 정기이사회 개최

순천향의대 동창회에서는 6월 29일 서울역에서 2019년도 동문화합대회 준비를 위한 순천향의대동창회 제1차 정기이사회를 개최했다.



대한의사협회 투쟁 현장 격려 방문

순천향의대 동창회는 7월 7일 조영덕 동창회장장과 이상운 부회장(5회), 심진섭 부회장(5회), 의협 기획이사인 박진규 동문(5회)과 함께 한국의료 정상화를 위한 의료개혁 투쟁 중인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을 격려, 방문하고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피아체블레 연주회 후원금 전달

순천향의대 동창회 김은석 사무총장(7회)은 8월 6일 순천향의과대학 오케스트라 동아리 ‘피아체블레’ 연주발표회에 참석해 지원금을 직접 전달하고 연주회를 축하했다.

공지 2019순천향의대 동문화합대회 신청안내

일시 : 2019. 10. 27(일) 12시

장소 : 아름다운CC(충남 아산시 영인면)

경기방식 : 샷건(36팀)

참가비 : 그린피 19만 원(카트비 포함)

참가 기념품(6만 원+α), 상품, 저녁 만찬 동창회 제공

참가자격 : 순천향의대 동문, 가족 및 지인(부부팀 환영)

단체버스 운용안내 :

서울병원 출발 > 분당 서현역(AK백화점 정문1, 3번 출구) 경유

부천병원 출발 > 인천 연수3동 공영주차장 경유

(출발 예상시간 09:00, 정확한 출발 시간은 추후 문자공지)

신청안내 : 사무실장 010-4892-6100으로 문자신청 바랍니다.

따스한 인술, 희망의 인재 후원

향설서석조박사기념사업회

재단법인 향설 서석조 박사 기념사업회는 순천향대학교 설립자인 고(故) 향설 서석조 박사의 인술에 대한 열정과 교육적 이념을 계승하고 발전시켜 사회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 공익법인으로서 장학사업과 학술연구지원사업 그리고 의료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석조 박사의 숭고한 인간사랑과 교육적 이념을 받들어 국가발전에 기여함과 동시에 선생의 유덕을 기리고 기념하기 위해 뜻 있는 여러분과 향설서석조박사기념사업회, 순천향대학교, 순천향중앙의료원을 사랑하시는 모든 교직원 및 가족, 동문, 학부형, 기업체, 기타 단체 누구나 후원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후원금 납입안내	
기부계좌	기업은행 926-000236-04-015 (예금주 : 재단법인 향설서석조박사기념사업회)
문의	(재)향설서석조박사기념사업회 사무국 서울시 용산구 대사관로 59(한남동 657) 순천향대학병원 내 전화 : 02-709-9105

“나보다 남을 위하여...”
인간사랑의 교육철학을 실천한 고(故) 향설 서석조(徐錫助) 박사.



SCH NETWORK

“하늘 뜻 받들어 인간 사랑을 실천합니다”



SCH SEOUL HOSPITAL
www.schmc.ac.kr/seoul
02-709-9114



SCH GUMI HOSPITAL
www.schmc.ac.kr/gumi
054-468-9114



SCH CHEONAN HOSPITAL
www.schmc.ac.kr/cheonan
041-570-2114



SCH BUCHEON HOSPITAL
www.schmc.ac.kr/bucheon
032-621-5114

